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二頁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現地反對排除코 政府案强行決定

鎭撫案은別方法으로考究

今日閣議의決定內容

在滿機構問題

【東京電話聯合】十六日의 定例閣議는 東北視察에赴한 山崎農相을 除하고 岡田首相以下各閣僚出席, 陸海外三相이日本赤十字社總會에出席한때문에 午後一時에開會하야 劈頭岡田首相으로부터 改正案內容을 詳細說明한後 岡田首相이서 紛糾한 在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拓務省內의動向及十五日 關東廳警察代表와 會見한顚末을報告하야 政府는前回의 閣議에서 政府方針에關하야 菱刈關東軍司令官의措置에信賴하야 暫時靜觀키로 하엿는데同長官의 第二公報에依하면 事態는더 靜觀할수업는 情勢에잇는듯 이생각되다 그러나政府는閣議에서決定한 事項에關하여는 勿論變改할必要는업는것인즉 此際速히現地鎭撫의具體的方策을樹立하자고 述하엿다 이에對하야林陸相으로부터 憲兵司令官의 警務部長兼任의 必要는 去十三日陸軍當局議으로서明白하다 이것은決코 憲兵化하려는것이아님을諒解할줄로밋는다 政府로서는兩歸치말고 旣定方針대로邁進하기를바란다 大角海相도强硬意見을述하고 廣田外相으로부터도 一九三五年의 國際的重大危機를압두고 國內에서이가튼 不統一을暴露함은 참으로憂慮할일이다 라고林陸相과同樣意見을披瀝하고 町田商相도同樣意見을述하야 結局政府는 旣定方針의改革案을實施키로하고 現地及拓務省의反對運動에對하여는 別途로鎭撫策을講키로한後散會하엿다

關東廳全職員은 倒閣運動에邁進!

現內閣은問題解決이困難타고 重大化한機構問題

【新京十五日發聯合】在滿機構問題로岡田內閣이 危機에瀕하엿다는 外電에接한 關東廳全職員은 岡田內閣下에서는目的을貫徹키어렵다고하야 倒閣에邁進키로되엿다

統制委員幹部會 反駁聲明發表決議

【電通大連十五日發】關東軍署本部는 巡査統制委員會의非公式聲明書發表를 報道에依하야 緊急幹部會를開催하고今後一層猛運動을開始하는同時에 反駁的聲明發表를 議하엿다 關東廳警察部는 俄然緊張하야 深更임에도 不拘하고 某所에集合하야 密議를거듭하고잇는데 右는關東軍의聲明에依한 全滿警察官의 動搖를防止키爲해 그準備計畫을議한模樣으로 直時全滿警察署長에게 極力部下를 警戒하도록命令을發하는一方 大連警察署...

拓務高等官會議 兩課長慰留決定

【東京電話聯合】拓務省高等官會議는十五日午後五時부터拓務省大臣室에서 開催되엇는데 北島生駒高山三局長及 各課長高等官等參集下에(田中坪上兩次官手代木參與官은 缺席)在滿機構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하고다시 이問題로辭表를提出한入田警務 森東企畫兩課長에對하야어데까지 誠意로서慰留하기로決定하고 同七時에散會하엿다

나치스黨大會

去九月六日부터 누렌브르크에서 나치스黨大會가 열엿는데 九日에는 히틀너가이大會에 出席하야 壯嚴한나치스特行列의 獨裁官眼前에 示現되엿나 이行列에는 八萬 突擊隊、一萬二千의 防衛隊以外 獨逸 陸、海、空軍까지도 參加하엿섯다한다

참을때로참엇스니 인제는所信을貫徹!

政府案反對는現地側小數分子

關東軍强硬意見發表

【新京十五日發聯合】十五日午後八時 關東軍當局은 新京記者團에 左記發表하엿다

吾人은 在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數十日동안 沈黙을 지켜왓다 그러나 吾人은 忍從沈黙할수업는 事態에 이르럿다 正義와가티 宣傳으로써 反對를 꾀하는 現地의 一部少數分子의 反對運動을 世上一般에宣傳코저하는 策動을 하고잇슴은 참으로도 遺憾이다 特히 今月十二日 關東廳職員大會의 聲明을 읽으며 吾人은 드디어 靜觀할수업게되엿다 생각컨대 關東廳警察官은 事務的으로當時의 態度를 決定치못하고 잇는때에 各方面에서 漸次로 軍의行動을 支援하야 ...

協力하고或은 統制와安定에 從事한點은 吾人의承認하는바이다 又彼等代表는 在滿日本人으로서 政治에는 오히려 無關心하엿다 彼等의 運動의 眞意는 大局的見地로보아 國策上의 不安이아니고 그職務上의 不安에 基한것임은 吾人의諒解하는바이다 吾人은彼等의 官紀를 動하는 것에는 不拘하고 彼等의 眞意를 十分히 ... 하야 部局에 對한 考案에 關하야도 用意를 周到하게하엿는데 ...

關東軍 少壯將校級漸次動搖

【新京十五日發聯合】關東軍은 靜觀의態度를 取하고잇섯는데 在滿機構問題에關하야 官吏의反對氣勢가 올르자少壯將校間의空氣는 漸次緊張을呈하야 警官側의態度는 國策의 大衛에 ... 하고 協議를進行中으로 그推移는자못 重大視된다

關東軍聲明書發表 小乘的反對는 絶對排擊

【電通新京十五日發】關東軍은十五日午前全幕僚를召集하고 緊急會議를열엇는데 今回의問題는 이미論議할餘地가업는 더욱 小乘的反對는이를排擊하기로 決定되야 一般의 理解를 求하기로 하야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人種鬪爭은 ... 滿洲國의 複雜한 國際紛爭에 ... 轉化하려는形勢를보이고잇다

警官代表第二陣 一兩日中出發

【電通大連十五日發】機構問題에關한 南京의空氣가尖銳化하는同時에 現地의空氣도益益緊張하야 巡査代表陳情隊第二陣三十名이 一兩日中에東渡키로되엿다 그리고全滿署長代表도 不遠間渡東하야各方面에運動할터이다

原案遂行을 林陸相이進言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十六日定例閣議에서 따로岡田首相과會見하고 在滿機構改革案에對한 現地警察官의反對運動方針에關하야 詳細히聽取하엿슴으로 首相에對하야 旣定方針대로 原案을斷行토록 政府의決意를促하고 그래도反對運動을繼續함에잇서서는 官紀肅正上으로보아 徹底的으로取締할것으로보인다

匈牙利政府에 유國公使가抗議

테로團의居住關係로

【電通벨그라드十五日發】確信할만한消息에依하면 푸다페스트駐在의유고슬라비아公使는 十五日匈牙利政府에對하야 유고슬라비아國政府는調査結果 匈牙利國은 유고슬라비아國王알렉산더一世陛下及유고슬라비아政府大官의 襲擊을計畫하고잇슴으로有名한테러리스트團의 首領 이하 ... 에 領土內居住를許하고잇는 것이判明되엿다 匈牙利政府는 ... 을指摘하야 强硬한抗議를 提出하라는 訓電을바덧다는旨를發表하엿나 유고슬라비아政府가 알렉산더一世陛下의 暗殺犯人은 마케도니아·테로리스트團의 一味라고 ...

朝鮮神宮例祭

十七日은 神嘗祭임으로朝鮮神宮에서도 例祭를執行할터인데 早旦에社殿을裝飾하고 午前九時半에 諸員이參集하야 所定의節次에依하야 儀式을執行할터이오 式畢後에는直會가잇슬터이라한다

勅使宇垣總督參向

朝鮮神宮例祭에 勅使로拜命된宇垣總督은 隨員을거나리고 十六日夕刻부터朝鮮神宮勅使殿에 參籠하야 齋戒沐浴하고 當日에는黑袍의衣冠으로 參向하기로되얏다

墺太利共産黨서 某種陰謀를計畫

警官隊와國防軍에서總動員

維也納全市警戒騷然

【電通維也納十五日發】墺國政府에서는 十五日夜共産黨의 不穩計劃이 計畫되고잇다는情報를探知하고 十五日警官及國防軍에對하야 武裝命令을發하야 全市를警戒식히고 機關銃을 配置하고 要所에 據點하는 市中에 不穩의 空氣가 漲溢하야 異常히緊張을 보히고잇다

癌의발칸! 癌의秘社!

마케도니아의由來와 秘社코미다제의正體

【一】

駿卿生

世界大戰이發生한지 꼭二十週年, 歐洲와極東의風雲이 또다시急迫한이지음, 佛國을 訪問하려고말세이유港에上陸한유고슬라비아의 알렉산더 皇帝가 突然한狙擊을바더그를마중나왓든 佛國의外相바르투氏와함께 殺外의慘變을 當하고말앗다 유고슬라비아는 곳世界人의耳目에 오르게되엿다 ...

接的動機를지은것도 結局그나라안 사라예보라는땅의한 靑年, 지금도리어서비아의입금이어느나라 어떠한種類의 사람으로부터 넷날墺 제皇太子의運命을 되푸라하고잇다 이慘變으로因하야果然 二次의 世界大戰이또다시勃發될것이냐? 아니냐? 무엇보담도 그犯人이 ... 그犯人의 背後關係는 ...

으로부터 나온것이라고 ... 一部權謀꾀가티 ... 그結果가 ... 조용하리라고는 ... 自己네의責任上 犯人의 ... 共犯者에 熱中하고 ... 와는 世界의 모든사람들 ... 對하야 ... 생각하고잇다 ...

中國要求拒絶?

米政府의對中回答

銀政策에關聯하야

【電通華盛頓十五日發】十三日駐米中國公使施肇基氏를通하야 南京政府에手交된米國의銀政策에對한 中國回答에關하야는 一般의 國務省은沈黙을직히고잇는데 確實한筋에서들은바에依하면 米國의回答은 用語는友好的이지만 內容은明確히 中國의要求를拒絶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中國의 貿易上에重要한 要素인故로 米國의 立場을 全然無視할수업는터이다 이見地에서 中國公使가 十一月 選擧를압에두고 ... 하야政府當局을 牽制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汪精衛氏重態

【南京十四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氏는 十二月夜膽囊炎으로高熱을 發하야 方今重態에빠저잇다

人事

▲元漢慶氏(延禧專門學校長)就任式及人事次來社

▲金倫篤氏(延禧專門校副校長)同上

暗殺犯人은 勃人?

유고슬라비아政府의主張

佛、國際問題化를警戒

【電通巴里十四日發】유고슬라비아 王及바르투佛外相暗殺犯人의身元에關하야 佛當局은 ... 이라고 ... 유고슬라비아人이 ... 유고슬라비아政府는 十四日 ... 去五月에成立된新內閣에依하야 ... 國交親善 ... 國際聯盟에 ... 犯人은 ...

베넷쉬『책코』外相 佛首相과重要協議

【巴里十五日發】바르투外相 暗殺에 參列한 책코슬로바키아外相 베넷쉬氏는 十五日首相 두메륵氏와 一時間에亘하야 會見하고 다시新外相라발氏와會見을遂하엿다 會見은十六日다시 繼續될터이다 베넷쉬外相은 유고슬라비아와王兒의 問題에 關하야 ... 國際聯盟의 重要對策을 ...

八面鋒

◇政府는原案을執行키로, 現地에서는倒閣을運動키로.

◇距離가너무멀지아니한가、씨름을하랴면샅바를잡아야할 것.

◇日米代表의會談到着으로海軍會議의準備工作만은完了.

◇豫備會談에比率主義의打破나 明敎 나로써는 ...

大田郡大田邑本町一丁目四九番地
委托運送業 委托業
魚 藥 米 穀 其他 百般 物材 物布
元 豊南運送合資會社
電話三八九番 振替京城六四九二番 私書函大田二十一號 電略(ㅇ ケン)

神經衰弱 精力缺乏에는
活動素 リキシン이第一
現代人은頭腦를極度로酷使함으로神經衰弱에걸이기쉬운 神經衰弱은 여러種類의 症狀을呈한 다 全身倦怠、精力缺乏、腦胞의活動 ... 리キシン은前記症狀 ... 服用하면 ... 强壯、 ... 强健하게 ...
리キシン으로元氣를 ...

滿天下讀書家께
靑春의花夢
小說界에王인 靑春의花夢은 最近의傑作임으로 躊躇치안으오 奇怪한探偵은 보다가놀수업고 눈물을 ... 春時에戀愛는 血이躍動되며 近代에 볼수업는眞情은 누구에게나모범이된다
注文殺到! 未久에品切
京城鍾路 新舊書林

京城鍾路二丁目
時計修理 完全 普信堂時計舖

洋燈專門
朝鮮硝子製造所

朝鮮料理 西洋料理
京城府公平洞七八番地
太西館
電話(光)二一五四番
別莊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 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

カタログ進呈
지감지
賣都
京城南大門通三 服部正安商店

優美館
團成社
朝鮮劇場
桃花劇場

傍聽禁止中에 午前中廿四名審理

法廷構內는 蕭條、警戒만 嚴重

城津農組事件公判開廷

淸津서 本社特派員 金起林 發電

【淸津에서 本社特派員金起林發電】 농민운동의 의식적강화와농촌청、소년과 부인의 직업별재조직과 아울러 직접행동을 강행하는한편 살상사건까지 일으켜 함북농민조합운동의 최후『페ㅣ지』를 선혈로써물드린 성진농민조합사건(城津農民組合)의 피고 리규송(李奎宋)외 칠십사명에 대한보안법위반、치안유지법위반、출판법위반、포력행위 취체규측위반급상해(保安法違反治安維持法違反 出版法違反 暴力行爲取締規則違反及傷害) 사건의 공판은 예정대로 십륙일오전 아홉시부터 청진(淸津)지방법원형사대법정에서호전(戶田)재판장의심리와가등(加藤)김(金) 량배석판사 참석과 송본(松本) 검사의립회와량(梁)변호사렬석으로열리엿다

개정벽두부터 특별 방청인으로는 함경북도 경찰부고등과등촌경부보(藤村警部補)와 소림(小林)청진경찰서고등계주임과 전전(前田)청진서장등에게만방청을 허락하고 일반방청은금지하얏다 물론사건이 공개공판으로진행되지못할것을 미리짐작하얏음인지 멀리서온 방청인은 이삭인바게업고 법정압헤는 사오녕의 경계하는경관이 삼엄한 비람결에 안색조차 소조적막하게서서청진지방법원개설이래의 처음되는대공판도극히숩슬한속에공판이열린것이다

피고들은쌌은아홉일곱시경에벌서형무소에서 법정으로 이송되야잇섯기때문에 외인은 누구한사람도 그들의얼골을 어더볼수업섯다 이와가티 피고들의얼골조차 외처사람에게 보이지안토록경계가 엄중하니 만큼그들의호송연도에는 헌병과 경관삼십여명이 으리으리한 경계를계하얏다

이와가티 배밀차엽중한속에서진행되든 공판은 정오에이르러 일단휴게하얏다가 점심을마치고오후한시부터 속행하는 중이다 오전중에는 이십여명의심리만을 마치고오후에 속행하는것으로 아모이상이업시 이대로만심리가 진행된다면 오후다섯시까지에 전피고칠십오명중의 반수는 무려히심리할듯하다

다음속행 공판은 오는십팔、이십팔일에개정할터이라는데사실심리는 십일일까지에 마치고꼬검사의구형이잇슬터이라한다

심리중의 피고들의 태도는일반으로 온순하야 공판은平穩한속에진행중이라한다

未逮捕된四首謀 "山童"되여 尙今活動

樵童과牧女를連絡員삼아 最近에도怪拉致事件

사건의 검거개시이래 사년이나되어도 아즉도주요한 관계자중송하동(松下洞)허모(許某)외사오명은 경찰의수사망을 교묘히피하야 산에숨어잇서 이리저리피신을하고잇서서 경찰서를 땀내게한다고한다

그들은 항상산에서 거주하야나무하러 가는 초동(樵童)이나꼿을따러가는 처녀들을 련락원으로사용하야 마을정세를 탐지하고잇다 경찰서와 마을에서는그들을 산동(山童)이라고 부르고잇다

그들은 시방도 직접행동을할려는 준비를하고잇서서 몽둥이가튼것을 지니고다니면서 경찰관들의 습격을 방비하고잇다고한다

지난팔월상순에는 송하동(松下洞)한방의원 모(某)는 일즉이『산동』(山童)들로부터 밀정으로 지목되어잇섯든바 밤중에어떤사람에게 불려나가서 집에도라오지안홈으로 그의안해는 이상히 생각하고 이웃십과 근처사람들을 깨워일으켜서 동리사람십여명이 총동하야 등불을켜들고 사방으로 차저본결과 동리박 못가에서 수상한 소리가남으로 쫏차가서본즉 과연 그한방의원은 몸뎅이는 동빠로묵기고 입은 헌겁으로 콱 막혀서잡바트려 잇는것을 발견하엿다

그것도 역시그『산동』들의 한소위로 의원을처치해 버릴양으로한 짓인듯한대 동리사람들의든등불이 가차워저가는것을 보고서 경관인줄로 짐작하고그만 산으로 도주해버린것인듯 하다한다 아즉도 그들은 체포되지안햇다

新幹會解消以後 農民組合에注力

兒童走卒에까지○○歌敎習

被告들의活動槪況

【淸津에서 本社特派員金起林發電】 소화륙년봄 신간회해소리론이 대두하자 피고들은누구보다도 먼저그에 찬동하고 동년삼월 경성에서열린 신간회해소대회에 피고중 당시출옥한지 얼마아니되는 김재수(金在洙)를 대표로 파견하야동대회석상에서 열렬히해소를 주장케하엿고 여의하게 신간회가해소되자당지에서는 즉시신간회 지부와청년동맹을 해소하엿다 그뒤그동안까지 신간회와 청년동맹의령도(領導)하에잇든농민들을새로히 결성한 농민조합의기치아래 재조직하야 순식간에성진(城津)칠개면에열네개소의지부를설치하엿다뿐아니라산간깁흔마을과마을에『야체이카』라고불수잇는반(班)을두어놀라운기세로농촌의청소년ㅣ들히부녀자사이에 세력을부식하야 소조한산간벽지에서도 밤마다 산곡과산림사이에 그들절문이를 모아노코『아지푸로』로써극좌의적사상의선전에 진력하는 동시에내용겨렬한 창가를가르켜 군내방방곡곡에서 륙칠세의 어린아이들의입에서도그런종류의창가가불려지게되엇다

그리고 단오내가튼 명절을당하야씨름판이 버려지면 군중이모히는것을리용하야선전삐라를뿌리는등그행동은공공연하엿스며한편안그세력은 놀랍게 융성하엿다 이와가튼 활동에대경실색한경찰은동년구월오일한밤중을기하야 질풍신뢰적검거에 착수하야이천여명의농민조합원가운데 오백여명을검거하야 그로써성진농민조합은 자취도 업시분쇄가되엇다 그리하야 함경선농성역(農城驛)과업억역(業億驛)사이에 잇는 화장면송하동(松下洞)은 실로 이번 사건의진원지(震源地)로써그동리지부(支部)의 회관은당시에는 당당한건물이엇스나 지금은 집웅에 망초가 우북히 자란채벽은 퇴락되고 창틀은산산히부스러저 황량한그림자가 차창으로 보이어 녯날의활기를조상하는듯하엿다

外泊男便길드리고저 強盜虛僞申告騷動

妾집에가자는男便에警告로 演劇꾸며다 警察에

가을바람소슬한 기나긴 밤에전전반측으로 잠을일우지 못하고이불속에서 남편그리운 젊은녀자가 꾸며낸강도극 하악ㅣ종로일정목십칠번지 리모(李某)의안해신선희(申善姬=假名)(二〇)는십륙일 오전두시에 세명의강도단이 그의집에드러와서 한명은대문바게서 파수를 보고한명은대문안에 서고한명은 낫헤수건을둘러쓰고 자기가 자는방에드러서서 돈백원을 내노으라고위협을 하는것을돈이 업다고 대답을 하엿더니 그러면 래일밤에 다시오마하고 가버렷다하면서 밤중에 벌벌떨면서종로일정목파출소에신고하엿다

종로경찰서 에서는 형사대를총동원시켜 그부근일대로 범인을수사하는일방으로그녀자의집에가서 강도가 드러왓다는경로와 기타상황을실지로조사해본결과 전연그럼즉한 형적이 업슴으로 그를종로경찰서로 데려다가 엄중히취조하엿더니 강도는 드러왓다는것은 빨간 거즛말이오 그의 남편이 오래전부터 첩을어더다른 동리에살림을 차려주고 나제는 본가에와서 상점을보고서는 밤에는 첩의집에만 가서자고잇슴으로남편을 놀래게하야 본가에와서 자게할 회책으로 한것이라고 자백하엿다 종로경찰서에서는 그녀자의 사정은동정할만하나 허위신고를 한것은 용서할수업다하야엄중히 처벌하는동시에 그녀자의남편 리모도 불러다가록록히설유하엿다한다

思想事件關係 十數名檢擧

珍島警察署에서活動

전남진도(全南珍島)경찰서에서는 구월하순 동군 군내면세등리(郡內面細燈里) 곽재술(郭在述)외수명의청년을 검거하는동시에 경찰부에서 계원이급거히와서 엄중히취조하는일방 수회에 미처서 동세등리에서 또십여명의 청년을검거하여다가 엄중취조를하여오든중 금월 십일에는 또다시무슨단서를 엇엇는지 각면주재소경관들까지 소집하여서 각방면으로 엄중한경계를하는동시에 동군읍내에서 박종협임승수리길성(朴鍾挾任承[illegible]吉星)과동군고군면에서 조규선박종식(曺圭先朴鍾植)등을검거하여다가 엄중한 취조를계속진행중이며 아즉도세등리(細燈里)방면서도 다수청년을계속적으로검거하여 오는바 그중에는아 속시칠팔세가량의 묘령녀성 한명도끼여잇는바 전후검거된청년남녀가 십수명으로서 진도에서는 실로처음보는 대검거라는대본사건의 그확실한 내용은 아즉알수업스나 사상결사사건이라고한다

一川式工事反對 檢擧對策協議?

萩原慶南高等課長이上京 保安課서鳩首密議

십륙일아침에 추원(萩原) 경남고등경찰과장은 돌연 경무국에 나타나서오전구시부터보안과장실에서 근등(近藤)보안과장 통정(筒井)부산(富山)량사무관과 전(高田)정이(井伊)량속등과모히여 문을굿게닷고 장시간협의한바가잇섯다 협의내용은극비에부치엇으로 자서히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일전부터 김해(金海)서에서 검거취조중인 락동강(洛東江)수해리재민중천변십여명이 일천석(一川式)공사에 의한 국고보상 요구 문제에대하야 비밀히 회합하야 모종운동을 이르키려다가 검거된사건의 진상에대한 보고와 또한가지는 경남에서 작년에 적색교원사건을 검거송국한후 일시 잠자는듯하든 경남지방적색운동이 최근다시 장해적세력이부식된것을 탐지하고 이에대한검거취체방침에대한 구체적의를한것으로 보이는데 특히적색조직의 검거에대한것이 주요한협의내용이라는바 추원고등과장의 상경협의에따라 이량사건은 창차어떠케진전될는지 비상히주목된다

七十老婆의 餠商資金詐取

【仁川】 인천부만석정(萬石町)이십번지 김룡구(金龍九)(六七)는친척과 자식도업는 무의무탁한노인으로 오직 그의부지런한것을 밋천으로 떡장사를하야겨우연명하야 가며 천신만고로모은돈십이원을 그이웃에 사는허현(許鉉)(三〇)이가콩떡을잘만드니 가티동업으로 하자고속이여 전기십이원을 사취한것을소관서원이 탐지하고 인치취조중이나 현금은발서소비하야버리엿스므로 전기리인은 외로운자긔신세를 한탄하기 마지안는다는바 전긔허현은 전과일범의장한으로 소관서에서 그소행을미워하야엄중처벌하리라한다

今朝에初霜! 거리에防寒陣

엇그제 나린비끄터 기온을와락 내리는 만추벌판의계절풍(季節風)이불더니 오늘아침에는 서울의첫서리가왓다(최저온도가 이도) 이것이 평년에비하면 하로가느즈나 작년보다는 여드레나 일럿다 어제밤부터거리에는 여름동안 대기(待機)햇던오ㅣ버가 단숭 단숭그리고 스왜터ㅣ를스마ㅣ트하게입은 녀학생도보연다 내일은 구월구일의 중양가절(重陽佳節)! 이제황국단풍을 즐길 기회도얼마남지못하엿고 겨울은다처오게되엿다 (물론이기온이 이삼일후에는 약간풀니긴는할터이지만)

朝鮮人死者氏名

大阪風水害最終調査

【大阪】 금번대판、신호、경도부면의풍수해에생명을일흔사람은대판부하에서만도일천륙백륙십삼명경도부(京都府)하에서만도이백삼십이명이잇섯는데그중에서 조선동포의 사망자가누구나 하는것은 좀처럼 조사가 빨리될수업섯다 그러나본사 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경도부하와 병고현(兵庫縣)하의 사망자씨명은 명히발표하엿고 대판부하의 사망자씨명도 약반분은 조사하엿스나 전부의완전한 조사를할수업섯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든바 최근대판부의 조사를하면 사망자칠십사명의 주소씨명은아래가티

本籍住所	氏名 年齡
慶南昌原、[illegible]、池谷里	金精出(二四)
忠南扶餘郡、石城、鳳亭里	孫鳳姬(六)
慶南金海、鳴旨、東里	朴小分(三)
慶南昌原、上南、河區丁亭	金甲祚(三〇)
慶北以下不詳	金聖敎(三二)
慶南泗川、西川、小松里	賈順愛(五)
慶南晋州、奈洞、柳順里	申明均(三〇)
全南務安、荷衣、大里	李春泰(三四)
慶北軍威、軍威、內良里	池元甲(二六)
未詳	陳周仁(三〇)位
慶南山淸、生比良、示山里	權昌錄(三)
慶南固城、下一、松川里	不詳(一)
全南統營、統營邑、吉野町五九	金三蓮(一)
慶南固城、大川、葛川里	李鳳仙(八)
慶南昌原、東、石山里二八七	金照坤(二〇)
本籍未詳	根本俊(不明)
慶南泗川、泗川、平松里	柳順禮(三二)
慶北漆谷、漆谷、若木里	姜順伊(二六)
未詳	李守德(八)
慶南東萊、砂上、掛德里	全未連(一)
慶南東萊、砂上、德浦里	[illegible]伊(九)
慶南釜山、[illegible]	[illegible]
慶北淸道	[illegible]
同	[illegible]
全南務[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慶南梁山、上北、左森里	池杜香(六)
未詳	金伊粉(三)
本籍未詳	朴宗心(六)
慶北淸道、大城、院洞	洪守萬(九)
本籍未詳	張泰鎬(六)
慶南外島依蓬所	劉順鎰(四八)
慶南泗川、龍岩面	趙明實(一九)
慶南宜寧、宜寧、西洞	姜正順(三)
慶南泗川、龍岩面	姜玉熙(三)
慶北星州、綠賢、友岩洞	梁泰哲(三)
慶南昌原、熊川、齊德里	村永周(三〇)
慶南昌原、熊川、同	孔順伊(三)
同	朴相伊(八)
同	朴祚伊(三)
[illegible]、漆谷里	姜伴伊(四)
[illegible]	孫德龍(九)
[illegible]	孫永南(四)
同	孫德連(一)
慶北慶山、河陽、淸泉洞	宋在玉(九)
未詳	宋周伊(三)
慶南泗川、南陽、左龍里	安慶守(一〇)
慶南東萊、長安、五里	金士益(四〇)
慶南密陽、山外、護谷里	金朴伊(三)
全南長興、長東、龍谷里	安達子(九)
慶南密陽、密陽邑、南海里	閔貴先(二一)
未詳	閔[illegible]花(五)
未詳	閔秉奎(三)
慶北淸道、豐角、松西里	[illegible]鳳(四)
慶北慶州、西、以下未詳	金龍得(五)
慶南晋州、東、西里	鄭三守(三)
慶南河東、石田、沙東里	崔仕成(六)
慶南泗川、正東、龍樹里	辛奉奎(一四)
全南濟州島舊左、終達里	康鍾日(八)
全南濟州島新左、朝天里	李義敦(九)
慶北榮州、安定、龍山洞	安模榮(三)
全南務安、岩泰、五相里	尹寶珠(三)
全南康津、鵲川、君子里	李般錫(三)
忠南天安、天安邑、榮城里	孟應錫(三四)
慶南東萊、海雲面	朴政子(三)
慶南蔚山、溫陽、大安里	金錫晋(三六)
慶南咸安、法守、內松里	趙永順(三)
慶北金泉、金項、巴川里	徐泰順(八)
慶南康津、道岩、新基里	黃五萬(一一)
全南靈岩、昆州、太白里	李相詮(九)
未詳	不詳
未詳	不詳
未、詳	不詳
死亡者合計	七四名

朝鮮體育會主催 十五週記念綜合大會

來卅一日부터로延期

朝鮮體育會創立十五週年記念綜合大會는 來十月十八、九、廿日의三日間 擧行豫定이든바事情에依하야 延期되여來十月卅一日부터十一月一、二、三、四日의五日間 全朝鮮綜合競技大會와合하여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한다(詳細追後發表)

中等庭球

朝鮮神宮奉贊庭球中等校部個人戰은 十六日午前十時부터京城運動場코ㅣ트와 京師兩코ㅣ트에나노아開催되엿는데이날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光成(玉錫中·金敬江) 4—2 養正(張受龍·金石萬)×

○[illegible](徐廷元·萬啓基) 4—2 商[illegible](長貝·[illegible]田)×

×中公(朴命魯·[illegible]永) 0—4 京師(金[illegible]·李[illegible])○

×邸商(金東錫·[illegible]) 棄— 中龍([illegible]吉·良田)○

○[illegible](宋在百·[illegible]) 4—2 高一([illegible])×

×中龍(林[illegible]·吉[illegible]) 2—4 大東(李[illegible]·[illegible])○

○光[illegible]([illegible]) 4—3 京中(大田·[illegible])×

×大[illegible]([illegible]) 棄— 二高([illegible]·[illegible])○

○平[illegible](金[illegible]·[illegible]) 棄 中東([illegible])×

×[illegible] 1—4 木商([illegible])○

×光成([illegible]) 棄 二高([illegible])○

○京商(木·中村) 棄 東星(朴[illegible])×

○海高(李[illegible]·元[illegible]) 4—1 京中(長·河[illegible])×

×公高([illegible]) 0—4 徽高([illegible])○

○邸商(洪承均·李仁俊) 4—1 大東([illegible])×

×東星(金[illegible]·林在) 棄 邸師([illegible])○

○徽中(松·吉田) 4—1 徽新(金[illegible])×

○徽文(李[illegible]·金[illegible]) 4—0 海高(李[illegible]·林承[illegible])×

×京商(小[illegible]·[illegible]永) 2—4 中公([illegible])○

……◇第二回戰◇……

×中京(中村·石[illegible]) 0—4 [illegible]○

×光成([illegible]) 3—4 中公([illegible])○

○京商([illegible]) 4—0 中龍([illegible])×

○師京([illegible]) 4—1 徽新([illegible])○

×邸商([illegible]) 1—4 大田([illegible])○

○二高(金[illegible]·白[illegible]) 4—0 大田([illegible])×

○新商([illegible]) 4—4 平[illegible]([illegible])○

○光[illegible]([illegible]) 4—2 中[illegible]([illegible])×

○東[illegible]([illegible]) 4—3 [illegible]([illegible])×

○商[illegible]([illegible]) 4—2 東大([illegible])×

×[illegible]([illegible]) 4—4 二高([illegible])○

○平慶(金世[illegible]) 4—3 木商([illegible])×

……◇第三回戰◇……

○高二([illegible]) 4—0 京商(中木·島村)×

×公[illegible]([illegible]) 3—4 徽高([illegible])○

○邸商(洪承[illegible]) 4—0 [illegible]([illegible])×

○京師([illegible]) 4—4 新徽([illegible])×

○[illegible]([illegible]) 4—3 大東([illegible])×

○東中([illegible]) 4—3 商[illegible]([illegible])×

○邸師([illegible]) 4—3 中[illegible](松·吉田)×

○文徽([illegible]) 2—4 公中([illegible])○

×商[illegible]([illegible]) 棄— 平慶(金世[illegible])○

○二高(李文[illegible]) 4—0 高[illegible]([illegible])×

×高三([illegible]) 4—1 新徽([illegible])×

○邸商(洪承均) 2—4 東中([illegible])○

×高二(金[illegible]·白[illegible]) 2—4 東中([illegible])○

……◇第四回戰◇……

○新高(張[illegible]) 4—1 東萊([illegible])×

○高二([illegible]) 4—2 光成([illegible])×

○邸師([illegible]) 4—0 [illegible]([illegible])×

×二高(李文[illegible]) 1—4 文[illegible]([illegible])○

○邸商(洪承均·李仁俊) 4—1 東中([illegible])×

×公中([illegible]) 3—4 邸商([illegible])○

女子排球戰績

女子排球第一回戰=釜山高女對第二高女戰은 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開始한바、第一節廿一對十八로第二高女리ㅣ드 第二節에廿一對十三으로 第二高女리ㅣ드하야結局二對零으로釜山高女敗하엿다

第二高女 2 (12 12 / 31 81) 0 釜山高女

第一高女 2 (21 17 24 / 19 12 22) 1 馬山高女

平實23 釜鐵4

神顯各道對抗野球決勝=釜山鐵道對平壤實業戰은 十六日午前九時廿分부터 平實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廿三對四로平實大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平實	2	4	6	9	0	0	0	1	1	
釜鐵	3	0	0	0	1	0	0	0	0	4—23

六大學野球戰率

◇十四日까지◇

	試	法	明	早	立	慶	東	勝	分	率
法政	13	:	2	2	1	1	3	9	1	.731
明大	12	1	:	0	2	2	3	8	0	.697
早大	9	1	1	:	0	0	3	5	0	.559
立敎	12	1	0	1	:	1	2	5	1	.458
慶應	11	0	1	1	2	:	1	5	0	.455
東大	15	0	0	0	1	2	:	3	0	.200
敗		3	4	4	6	6	12			

女子二百米新記錄

●渡邊와●鐮廿三秒八●

日本遠征中의『스테라●와라쉬—뷔츠』孃은 지난十四日、甲子園南運動場에서 열린競技會에서 二百米決勝에 23秒8이란超女性的 世界新記錄을 作成하엿나 同孃이 保持하여든從來世界記錄은24秒1이엇섯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七六미리의 高氣壓은 北中國의 內陸에잇서 그로부터氣壓은차츰 日本方面으로나자지고잇나 沿岸은아즉北風南은호리고 半島는中部以이족强한데 北部는大槪天氣가조코靜穩하다 氣溫은昨朝부터七度內外에내려서 京城에는初霜이잇섯나 明日도天氣가조코 아츰에는차리라

氣溫 昨日最高 一六、一 最低 七、三 今日正午 一六、一

인생問題

第一 오래된 생명보험 회사

이 회사의 창립된지는 一천九백여년전이다 그런고로 다른어느회사보다 가입자수가 제一 만타 그 가입자들은 온 세계 각처에 퍼저잇는 각색 인류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배당금 분배하기는 양기(兩期)로 정하엿스니 제一기는 별세 전인대 그 배당될것은 안심과 희락이오 제二기는 별세후인대 그배당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함과 영생을 주기로 담보함이다 또 이 회사 보험증권은 어떤 계급의 사람을 물론하고 다 어들수잇고 이회사 사장은『예수』그리스도시오 또 가입원서(加入願書)는 어느 예수교회에서든지 청구할수 잇는것이다

부인약성 益母草엑기스錠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튼튼히 나어 튼튼히 기릅시다 건강한자녀는 건강한모체로부터 건강한모체는 익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益母草엑기스錠은月經不順、帶下症、諸子宮病의徹底的治療와産前産後의養生에 國際的藥으로確認된古今唯一의婦人聖藥이니다 또男女不拘하고神經衰弱諸冷病、消化不良에特效가잇습니다

主効 냉병、경도부조、적백대하증、히스테리、혈기부족、하초허랭、수족궐냉、요통、소래、안색창백、산전산후、제반악증、경도시허리와아래압흔데、상기와두통구역나는데、부종、무시출혈등 약제냉병 소화불량에특효

藥價 十日分一圓 卅日分五圓 七十日分十圓

帶下症과子宮病에 子宮內膜炎、膣炎、膣가다루、淋毒性子宮病으로因하야下腹痛이甚하고帶下가잇는婦人은本劑를服用하시요

月經不順 月經時에下腹痛이나며全身이느른하며或年에여도月經이업는婦人도月經時期가一定치안이한婦人이本劑를服用하시면卓效가잇읍니다

産前産後攝生 産前에는姙娠腎炎、浮腫、姙娠惡阻、産後肥立不良、子癎等諸病이發生키쉬우므로益母草엑기스錠을服用하시면母體를健康케하며胎兒發育도順調로됨니다 또産後本劑를服用하면惡露가잘나와新鮮한血液을養하며母體의恢復이速합니다

特約店募集

本舖 京城府公平町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三 電光一三三六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敎益救 補血強精劑

生殖器衰弱

生殖器衰弱 精力衰微에特効

陰萎、生殖器衰弱、腎氣不足、健忘症、精力衰微、老衰防止、貧血諸症、神經衰弱

本劑는高貴藥으로集成한仙藥인대 其作用은極히微妙한지라 造血作用과元氣旺盛을兼備하고 性的神經을興奮케하며 局部細胞의活力을旺盛케하야 衰退한機能을 着着復活케하는 特殊效力을 發揮하고本劑를 服用十日에○部勃起力이增進하고 服用一個月에 精力이培增하야 老衰之人으로能히 靑年以上의快感을 得하는것을保證한나 精力을發揮하고 老衰를防止하고십흔사람이여 悲觀치말고 敎益救를服用하야靑春의快感을어둘지어다

藥價 十五日分 二圓五十錢 卅日分 四圓 六十日分 七圓

京城府鍾路二丁目二十一 發賣元 普仁堂藥房 電話光化門二一六番 振替口座京城五一六一番

16ミリ 出張撮影 岡本映畵部 TEL.2396

洋樂器 レコード アサヒ樂器店 京城府本町一丁目 電話本局二[illegible]九番

恩給 救濟附大特典 方法公文 笠井町一五〇 富國農業社

旗 カメヤ旗店

拾月拾八日 京城神社大祭奉祝超特別大興行 浪花館 明治町一丁目 電光二一四九 朝鮮日報京城販賣所

오늘의말슴

공중도덕

사람이 살어갈려면 공중도덕(公衆道德)이 잇서야한다. 그리하여야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유지할수가 잇는것이다. 물론 어느나라 어느사회든지 그국가 그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제정된 법률(法律)이 잇다 그법률은 그사회 그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업지못할것이다. 그러나 순연한 법률로써만 유지할수업는것이 잇나니 이것은 도덕으로서 제지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도덕이란 그가치표준은 결국 그사회의 회 여하에 잇는것이니 이도덕문제는 우리에게 커-단 관심을 갓게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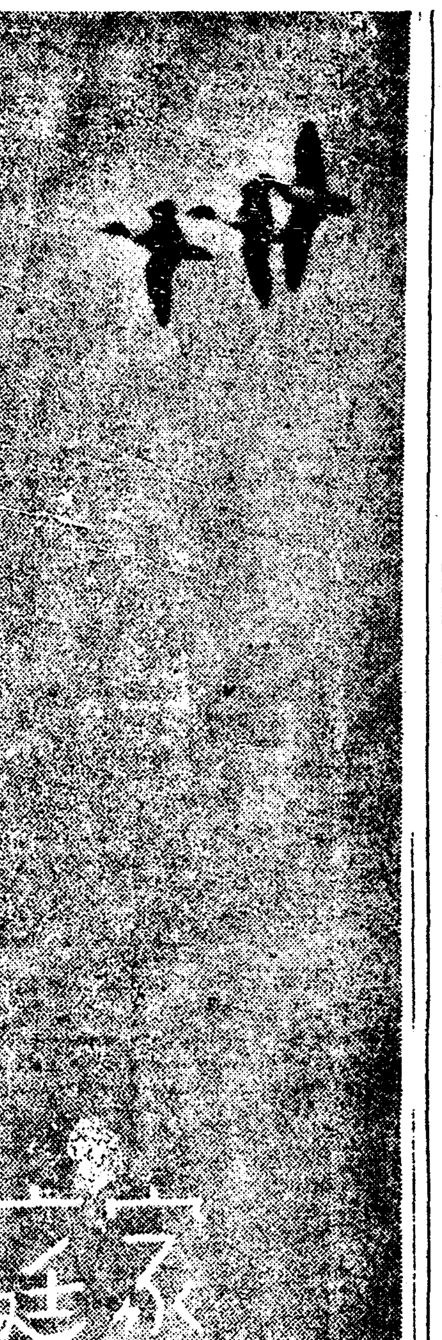
그러므로 도덕의 가치표준이 노픈곳에 그나라그민족의 문화의 란숙한꽃이 피는것이다

우리는 외국인의 도덕적미를 충송하는말을 듯는다 독일에서 가로수(街路樹)를 과수(果樹)로 만드는데 그 실과가 익을때가되면 그과일에 정가(正價)를 부친나코 한나 이리하여 길가는사람들은 먹고시푼과일을따먹고 그 갑슬 그나무에노코 간다고한다 그리고 로시아사람들은 길을뭇는 사람 게대해서 어느곳으로 가라는 친절히 가르쳐주는것은 오히려 물론절한면이오 그뭇는곳을 자긔가그곳까지 다리고가서 가르처준다는 미담이잇다 이것은모-도 고상한도덕적의 표현이어니와 이러한것은 우리조선사람들도 만히 배워야 할것이다

△

우리 조선녀성은 여러가지로 도덕적수준을 올려야 할 이잇스니 그레로는 목욕탕에서 모여사는데서 군중이 만히모힌곳에서 긔차나전차를 탈때에잇서서 특히공중도덕을 직혀야할것이다 목욕탕속에 한번몸을 씻지도안코 드러가는사람 또그가운데서 소리치는사람 공원가튼데서 대소변을보는- 군중이 만히모힌곳에서 례의를 직히지안는이 긔차나 전차를탈때에서로 몬저타려는이 이들은모-두도덕적 예의를잃은사람들로써 크게주의하여야할것이다

자긔를 점잔은 사람이 되게하기 위해서 공중도덕을 직히는동시 도덕수준을 노펴야할것이다.



삼월춘풍다버리고 이가을에피는국화

서리찬하늘아래제홀로 화중군자로정절을자랑해

오늘이 구월구일!

천산만야에 황금물결이 지고 나ㄴ숲속에 우수수 쓸쓸한낙엽이지는 이가을날 호올로서 리찬 이동산을 직히려는듯 송이송이 피인 국화는 삼월동풍에 요염한꼿을 비웃는듯 그 어진듯도 씩씩한듯도 그모양 내마음을 어지린다.

국화는 가을화단의 녀왕이거니와 옛날부터 이국화는청백한 정절(貞節)의 표증으로 되여잇다.

진대(晉代)의도연명(陶淵明)은이낙엽지는 가을하늘에 호올로피여 가을비찬서리에 그자태떠기지안는 국로(菊露)를바더진나라 역사를 썻다하야ㄱ 이름이 유명하거니와 이리하야 국화를 본때 도연명을말치 안는사람이 거이업시된ㅅ이다 김수장이

『일심어 느저되니 군자의덕 이로다풍상(風霜)에 아니지니 열사(烈士)의 절이로다 세상에 도연명업스니 그를 설어하노라!』

란 시조를 쓰어 국화의 덕을 자랑하고 도연명의 국화 사랑햇슴을 을펏거니와 리정보(李鼎輔)또한

『국화야 너는 어이삼월춘풍 다ㅅ내고 락목한천(落木寒天)에 너홀로 피엿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하노라』

를 올퍼 국화의 고절을 충송햇다

이리하야 국화는 그고절(高節)을 표증하고 잇거니와 순조(純祖)때에 리조판서 이든규재 남병철(圭齋南秉哲)은이 국화를 자긔의 집안식구로 혜엿니 그의 시를차저보면 그것이 그얼마나 국화꼿을 사랑햇슴을 알수잇는것 이론다

『추후 가첨 산권속(秋後家添山眷屬)백황산국양삼지 (白黃山菊兩三枝)……』이는국화를 집안식구로 역인것이 분명하니 국화 그절개 구듬매 이런일도 응당잇슬게다

풍속지(風俗誌)를 더듬어볼작시면남양려현(南陽酈縣)(只今支那河南省)에 감곡(甘谷)이란산곡이 잇는데 그골작이물달고도 아룸다워 그물맛이 유명햇다하거니와 이는 산중에 큰국화가 심기어 그국화물이 나려와 그가치 단건이라한다 그뿐이아이라 그물을 먹고사는 그산고을사람들은 얼마나 오래살는지 팔십에 죽으면요절(夭折)에도 대요(大夭)라하니이것이 사실이라면이국화를 본초경(本草經)에 연년(延年)이란 이름을 쓴것도 무리는 안인뜻도,

국화는 이가티도 고금을 통해 그의 고절을 충송하고 이거니와 이가을도 기퍼가는 구월도 중양절 이국화는 때를 만난듯 서리찬 가을하늘 쓸쓸한 화단에호올로 피여잇서 삼월춘풍의 요염한꼿을 비웃잇스니 우리인생 또한 이런 절개 어찌노프다 안을손가?

『가는놈은 가거라……』

국화 호올로 가을의진(陣)을 직히고 이런 말 한마듸로 큰소리 치고나니 낙엽져 이리뒤흘 저 뒤흘 떠도는듯 새날 살어주 이ㅗ 비명을 떠는듯노 나혼자 국화보며국화야! 나는 너와 함께 살으리란』 긴소리 불렷노라! (一步生)

자랑하는향기

건강하고명길라면 齒牙를튼튼히 (四)

세부란스齒科敎室 鄭保羅

유세구치는 다른치아보담일 즉나오는관계상 충치에걸리기 가쉽습니다 그것은일죽나오는 리유도잇고그치아저작면의갑븐 도랑이잇는고로 음식찌꺼기가 부착하야 발효하며 불결함으로 충치에걸니기쉽습니다

만일 충치가되면 곳병원에 가서 치료바들것이며그대로내 버려누어 그치아를일허버린나 면치열부정파악골발육에 큰영 향이잇습니다

만일 유세구치를 일측빼여 입혀다면 제이유구치는 후방(後方)으로 제이대구치는 아 프로이동하야 자리를좁게할야 고함으로다른치이는그이동의영 향으로 다른치아도 그위치를 변합니다. 즉치렬ㅡ 부정하게 됩니다. 유세구치의 보존에는 특히부모들이 주의하야 매입 치솔도이를 닥거줄것이며 늘 병원에가서 정긔적으로 검사를비들것입니다.

四、齒列不正과 矯正時期

(一) 선천적원인

가=어떤원인으로하야 영구치가 결손할때에는 부정교합 不正咬合이되며 치아의퇴화 적현상으로볼수잇는 상악측절치(上顎側切齒)와 제이소구치 결손을 종종보게됩니다. 그밧게 만혼치아를 결손할때에는 선천적매독으로봅니다.

나=긔형치(畸形齒)

유합치(癒合齒)완곡치(彎曲齒)왜소치(倭小齒)거대치(巨大齒)·원추치(圓錐齒)등은선천적 원인으로 치열불정이됩니다.

(二) 후천적원인

가=유치에조기상실(早期喪失)외상(外傷)혹은 충치로인하야 악골에 급성염증을 이르킬때에는 영구치치아발육장해로 일즉발치(拔齒)하게됨으로영구치가 그위치를 변하게

나=유치만괴(晩壞)혹은 영구치의치아결손 혹은 매몰치(埋沒齒)로하야 유치가탈락(脫落)치지나도 그냥남어잇슬때입니다

다=영구치조실

외상(外傷)혹은 종양으로 혹은 충치로하야 영구치를 조기상실하면 부정교합을이르킴니다

라=영구치가 늣게나올때

선천적매독아、구루병아등은 매돌치, 치아전위(轉位)를 보게되며 치아가 늣게나옵니다

마=나뿐습관

손가락빠는버릇 혀씹는버릇 입술깨무는버릇등은 악골변형과 치열부정을이르키게됩니다

十月

◇午後〇時五分 …報

◇同〇時一分 野球試合實況 朝鮮神宮奉讚體育大會 一、中等決勝 二、一般決勝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 영애 나매 金昊圭

◇同六時二五分 講演 日本海의會戰과그後의影響(海軍大佐、武富邦茂) 講演 兩村眞太郞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李瑞求作 ㄱ月給쟁이의日曜日ㄱ 全一景

【配役】 明濟(月給쟁이)……李翼 그의妻……田環子 中國料理人……王福天 崔允吉……鄭英澈 朴첨지……金河彰 放送劇協會

◇同八時 音律、靈會像中 玄琴、館鍊淳 洋琴、金相淳 奚琴、閔完植 大笒、金永根 細笛、高載德

◇同八時三〇分 新唱劇 嫦娥 宗哀曲 朴月庭 鼓手韓成俊

◇同九時(東)獨唱과管絃樂 獨唱、關種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니콜라이、시펠브

十八日(木曜)

◇後〇時五分 俗謠 一、새타령 二、興打鈴 三、방아타령 四、梁山道 五、漢江水打鈴 六、도라지打鈴 七、아리랑 林明月 伽倻琴 李日善 奚琴 金寧樂

◇同二時 文藝講座 文藝眼에 비최인李朝史 (一)金東仁

◇同六時 하ー모니카獨奏 一、보헤미아 少女…발프作曲 二、觀盃行進曲…펜스탄作曲 三、프라듸아볼로…오-베르作曲 四、巨人의무리…그리슨作曲 이르페 하ー모니카·밴드 第一하ー모니카·李東波 第二하ー모니카·金峯 바리톤·許麟 바ー스·崔星在 떠블·바ー스·趙東人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五) 張志暎

◇同七時三〇分 趣味講話 旅行의가을(一) 金道泰

◇同八時 唱劇歌 一、短歌 二、唱劇詞 春香歌 金煉守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大) 吹奏樂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海軍軍樂隊

◇同八時五五分 連續野談 恩惠(一) 尹白南

한잔국화주에 년년익수 오늘이重陽節 명절된래력은이러타

오월에는 물에들어가 놀고 구월에는 산에 올니가 논다 는 말이잇다. 이것은 다른뜻 이아니다. 오월이라 오일은 단오가절(端午佳節)이라 일홈을 지은바 이날은 창포락향과 속에 들어가 목욕을하는것이 이명일을 마지하는 큰풍속이니 이는 일죽 왼놈에 사악한세상의 떠끔이 떠고물뭇듯 뭇턴는것을 깨끗이 씨서버림으로써 일년재앙을 막어낸다는 ㅅ이오 구월이라 구일은중양가절(重陽佳節)이라 일홈을 지 바ㅣ 날에는 맑고놉흔산 올나가ㅅ 화로 비ㅅ술과국화로 지존떡을 쥐도록마시고배부르도록 먹는것이 아명절을 ?하는 큰풍이니 이는신선을마지하야 면의를 ? 것이다

××

창포수로써악귀를막어내고국화주로써신선을 마지하자는것이 그방법은 비록 다르다할지라도 그목적은 모다 잘살고오래살자는데잇는것은 두가지가 똑갓다 그러나 년년익수를목적한 중양노리는 그의미가한층더 크고깁다할것이다

구월구일!

이날을 가르처 어찌하야 중양이라하얏는가? 그래럼을 물어볼진대 수(數)에도 음양으로갈나 옴수(陰數)양수(陽數)두가지가 잇스니 즉 일삼오칠구(一、三、五、七、九)등 다섯수는 양수에 속하얏고 이、사、륙、팔、십、(二、四、六、八、十)등다섯수는 옴수에 속하얏다 그런데 구월구일은구월이라는 구자와 구일이라는 구자가 모도다 양수에속한수ㅅ지써 양수(陽數)가 거듭 엇다라야 중양이라 일컷게된것이다

××

구월구일을 일년、삼백륙십오일중에 가장 복된날로써생각하고 이날을 큰 명일로써 지내기는 옛날 지나 한나라 시대부터 시작된것이다。그것도 우연히 그러케될 것이 아니오 분명히 그러케될 까닭수가잇섯든 것이다 당시에 환경(桓景)이라는 사람이잇스니 그풍성이 지극히 착하야 뭇사람에게 칭송을 바듬이 두터윗다。그러나 사람의 운명이라는것은 측량하기어려운것이다 이러듯 착한사람 게도 무슨 액운이잇섯든지 장차큰화가 눈압헤다처왓다 그러나 환경도 역시 신이아니고 사람이라 자긔압헤 닥처오는큰 재란이잇슴을 아지못하고안연히 갓가워오는모진운명의길로 만하거룸、두거룸터 걸어갈뿐 면하얏슬뿐아니라 불로장생의 이엇스니 실로위긔일발에 이르럿다

바로잇때이다!일즉생면이업든 홍안백발 한로인이 의부리 차저와 환경 일께워 갈오되

『그대의 압헤는 큰재앙이다 처왓다。빨리분홍비단헌겁으로써 도리 주머니를 맨들고 그속에는 수유(茱萸)를 따너어서 몸에 진이어라! 그리고 구월구일에 국화로 맨는술을 가지고 놉흔 산에 올나가 맘껏 마시라! 그리하여야 재앙을 면하리라!』

하엿다。환경은 그말대로 힘써 행하야 맛츰내 그재앙을 신선이되엇다。

아!이로인이 누구엿슬가? 이는 다른 사람이아니라 비장방(費長房)이라는 신선이다 이신선이 환경의 재앙을 물리처준것은 온전히 환경의착한행실에 감동이되엇든것이다 이때로부터 더욱이 구월구일을 주히생각하게하얏다。그리고중양가절이라하야 국화로 비찬술을 마시고 국화로 지진떡을 먹는풍속이 여기에서긔원이된것이다

국화를 수객(壽客)이라하고 또는 절우(節友)라하는것이물론 의미업는 결명이아니다。국화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먹는 꼿이라하매 그일홈을수객이라하는것이 망ㄹ된 칭호가아닐ㅅ이며 뭇꼿에 석가지 아니하고 호올로 서리찬놀아래에서 춘광을 자랑하는 절개를 고치지아니함으로 보아 절우라 일홈진것이 백번이나 합당할것이다。국화로써 중양을 마지하는데도 여러가지풍속이잇다 국화수를 마시고、국화떡을 먹는것은 예사어니와 국면(菊麵)을 쓰는것도중양가절의 잇지못할 큰 풍속이다。즉 구월팔일저녁에 조흔 햇솜을 국화송이만큼 피여서 국화를 터퍼둔다 그러면 그솜은 자연 하도밤사이에 그국화이슬도 흠빠저게될것 아닌가? 이것을거두어다가 왼놈을 씻는것이니 그뜬는년 익수하는 물로써몸을 다그면 그와가티 연년익수를한다는뜻인바 이송을 녀국면이라하다 중양의 사화(史話)ㅣ 국화에관한전설은 실노석지아니 한바이나다른고회를기다리고이만두자 (鵬靑生)

글쓴사람 (강순철)

連載短篇小說 愛慾 (10)

朴泰遠作 金熊超畫

第七折

변소엘 다녀나와、수돗아 가 서서 코를 풀더니까、그 새 누가왓는지 정(庭)안에이 기소리가 들린다。

『그래 당신의편지를 그압부 락자놈들이 왼통 번갈、읽구、깔깔내구 웃구、대체겨테서 보구잇든 내마음이어떠겟수?』

소설가 구보씨의 목소리다 문틈으로 홀낏 보니까、주인 선생님은 세수도 안한채、그냥 자리옷바람으로、아마 생각에 잠겨잇는모양이다。

『대체 그런 변고가 어듸잇소?하웅……』

『……』

아이는 점으로 나가려다말고 그곳에서서 안울엿듣엇나 두사람의태도가 그러케도 긴장되어보엿든까닭이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자들에게는 죄가 업다구할수잇지。그저 교양이 업서 그러쿠、좀 야(野)해 그러쿠…… 그러나 가증한것은 게집이요。어쩌자구 하웅의 편지를 그러케 아모에게나 보이구 그러는거요? 그게 성한년이요?』

『……』

『그보다두 대체 하웅은 어쩌자구 그런게집을 사랑하려들구 그런편지를 보내구 그랫소?』

『……』

『피해자는 물론 하웅 한사람이 아니요。내추측에도그것은 열손꾸락에 남을께요 그러나 참말 의미로서의피해자는 아마 하웅뿐일께요 떤자들은 거의다 례외업시 불량청년들인까닭에 그녀자의유혹에 빠젓드라도 그들은 결코 뉘우치지 아홀께징。아니 도리혀 그런게집이 그들에게는 퍽으나 조활슬께요。』

『……』

이야기가 잠깐 끈첫다。얼마잇다 구보가 생각난듯이、

『참、호옥、그게집이 당신한테 기창이란자 얘기 안합디까?』

『……햇서……』

『그래、그래노쿠는 또 기창이란자안테는 당신얘기를하거든 하웅、란 사람이、자ㅣ 이러케 시굴 잠깐 가 잇는동안에두 편지질을 자꾸하구 그러서、너무 룸상하니까 그저 가끔 맛나주구 그러는거라구。』

『……』

아이는 문틈으로 선생님의 얼골이 분명히 순간에 붉지는것을 보앗다。

『더럽다 천뱅구 그러구 사내답게 이처버리오。호옥매춘부에게 대하는거나 가티 바로 돈을내구 게집의몸을 살생각이라면 몰라。그러나 순정을 가지고 게집을 대접하구 게집을 타락의구렁이에서 건저주려하구!…… 그것은 다아 어리석은일이구 당치안흔 일이야。그게 지도하야 구해낼수잇는게집인줄아우?』

선생님은 역시 말업시 마즌편만 발아보고잇다가、갑작이 고개를 들고、

『애ㅡ 영수야ㅡ』

영수는 얼떨결에 대답을할뻔하다가 제풀에 찔끔하고、발소리를 죽여、부어뒤로 될수 잇는대로 멀직언 곳다 무슨이야긴지 자세하것은 몰론 알길업서도、그래도 대개 어린은 슨다。엿들엇다는것을 알면、선생님은 꾸중을 할지도몰른다。

그래 아이는 또한번영수야 ㅡ불으는소리를 듯고서야대답하고 그리고 점으로 나갓다

『너、어듸섯니?』

『저ㅡ 안에요。』

『지금 뭐 햇니?』

『아무것두 안햇세요。』

선생님은 잠깐 궁리를 하는모양이드니、

『너、이부재리 개키구、방치구、그리구 나오너라。』

일을 마치고 나와보니、구보씨는 이미 돌아간뒤엿다。선생님은 혼자 그대로 안저잇다가、

『호옥、내게 전화오드래두나 업다구 그래라。』

그리고 나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엿는지 얼마를 그곳에 멀거니 서잇다가

『그래、나 업다구 그래라。』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갓다。

(전와오길 열서간식、스무시간식 기다리든때는 언제구 연애두、참변덕야)

제가 알수도업는말을 되는대로 하고、문깐에나가 서이스러니까、그럴법한 양복입은 젊은녀자가 저편으로부터 이리로 향하여 온다.

育兒의十二個月 第十個月

(標語) 賢母에、健兒

離乳는只今 자! 느진분도 결심하고!!

夏에離乳는避하야、延期하야 두분도、꼭始作하야주십시요。時機를 노치면할수업게 되오。育 납분갓난애도 注意하면조곰도걱정은업소。(病兒의離乳는專門家에實際的相談後에)

▽第六個月以後의本欄參照하시오△

細密히注意하십시요。

衣服에對하야

感氣에걸이지안토록注意안하면안되오。그러타고함부로만히 이피지안토록。普通大人보다一枚쯤、한것이理想的으로엷게입어서感氣에안걸이도록習慣은只今부터붓치시오。속옷은가제、갓겁데온두명과혈옷을併用、개끗하네록、洗濯잘되는것、명주는不可、운동의自由를妨害치안토록입피시오。

十月頃의育兒法

母乳는一日二回쯤減少식히고、ラクトーゲン、에레돈、죽、빵等의外에煮魚스푸、野菜스푸、도미덴부、半熟卵黃少量、燒鉄、馬鈴薯、百合根、시금추국물等을도주고、숫갈노먹는거을르키여야育이增進됨 따라、果日을 삶아(겁질과속은파고)쨈을맨들어주고、비로소冷食을르키오。魚肉 脂肪이 적은흰살 도미鰈·자미)等母乳以外의食物늘增加식힘에따라서胃腸의狀態를恒常注意하고、大便의모양을잇슴으로

十個月乳兒離乳食餌의標準例

時刻	母乳榮養兒때	人工營養兒때	母乳又ラクトーゲン과同時주는食物
早朝六時頃	母乳	ラクトーゲン 二〇〇	ビスケット 二個
午前十時頃	母乳又는ラクトーゲン 一五〇	ラクトーゲン 一五〇	암죽 五〇、卵黃半個
午後二時頃	ラクトーゲン 一五〇	ラクトーゲン 一五〇	빵粥 五〇、果汁三〇
夕六時頃	ラクトーゲン 一五〇	ラクトーゲン 一五〇	煮魚스푸、암죽 五〇
夜十時頃	母乳	ラクトーゲン 二〇〇	無

(註)ラクトーゲン타는法比例는前가티九개月까지表를꼭보시요

離乳食의調理

菜스푸…新鮮한野菜(시금추당근가부라白菜百合根馬鈴薯大根)의適量에물을타시숫불도뿌分쯤 끄려버로걸음必要잇슴으로 少量의鹽又는醬油가쓰오부시等으로調味。

煮魚 푸…흰살고기를찜、내그찜에湯을適當히하다서、이것으로서 맘죽을맨드오。

빵국…ラクトーゲン이탄것一〇〇瓦에食빵十瓦(맛치箱大、砂糖五、茶匙에輕한一杯)를터서대딘것。

發育 本邦乳幼兒標準發育

滿十個月	男兒	女兒
體重	八·七八瓩(二·三三貫)	八·二一瓩(二·一八貫)
身長	七〇·六糎(二·三三尺)	六九·五糎(二·二九尺)
胸圍	四四·九糎	四三·七糎
頭圍	四四·六糎	四三·七糎

上外門齒 二枚나서、食物을 씹어먹는것을배움。要求를안들은직끌내고、허리를자치고、얼끌이 빰앗드록운다。玩具와食器、其他무엇이나혓드리고、앤긴대로던지고、창구멍을뚤코、소리를질으고길어하오。自己周圍에對한注意力이加하고物名을외이요。

進呈券 s10

……切線……取……

ラクトーゲン試用罐一合五勺分

本券과三錢切手와同封住所氏名明記封筒에도三錢切手貼付左記에送付하심을、切手貼付不足은局에서返送함、本券은每一人一回一枚에限함

大阪中央私書函二五號

第十一개月째의育兒法은十一月처음本紙上에揭載함。第一개月부第九개月까지의育兒法은本新聞名記入申込次第送呈함。

大阪帝大學醫學部講師醫學博士 愛ᄂ婦人會大阪府支部兒童相談所長 竹村一先生著

實際의育兒法 第三版

世에만혼母親을爲한普及版(定價三十錢)送料四錢으로提供함

大阪市東成區鶴見町四九九 發行所 健康教育研究會 振替口座大阪八〇六六二

『아해를튼튼히 길느는사전 行文簡明、內容豐富의育兒百科書』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月經寡少 에

卵巢實質 호르몬劑 오오호르민 オオホルミン

詳細說明書 無代進呈

本劑는內分泌學最近의研究에依하야、機能이旺盛한雌性哺乳動物의卵巢實質에서抽出한總「호르몬」製劑이올시다。

婦人의健康은卵巢機能에左右됨이니、此卵巢機能에故障이生起면心身에病的現象이오는것입니다。

「오오호르민」은女性의生體保護에가장重要한製劑이요

服用이容易하며、服用後嫌忌할副作用이全然업습니다。

一、卵巢缺落症狀……頭痛、眩暈、不眠症、四肢·腰部冷感、記憶力減退、性慾減退等

一、卵巢機能障碍……月經不順、月經寡少、子宮發育不全症、乳汁分泌催進等。

一、新陳代謝疾患……血壓亢進、動脈硬化症

一、精神神經系疾患……神經衰弱、憂鬱症等

【價格】 注射液 一cc五管(三圓〇〇) 一cc三〇管(十三圓五〇) 二cc三管(三圓一〇) 二cc六管(五圓九五) 二cc三〇管(二六圓三〇) 粉末 二五瓦(六圓一〇) 一〇〇瓦(二三圓〇〇) 錠劑(〇·二〇) 五〇錠(一圓七五) 一〇〇錠(三圓三〇) 三〇〇錠(八圓六〇)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各地知名藥店에서販賣함)

OOPHORMIN

朝鮮語研究의 本領

現下綴字問題에 對한 論究 (九)

洪起文

이제 나는 다시 本問題에 들어가서 綴字問題에 對한 論究로 들어가고자 한다。이 綴字問題는 우리 朝鮮語研究家들로부터 거의 全朝鮮語與衆의와 **同等** 許價되야잇는만큼 한번 그論究를 試驗하는것도 決코 無意味한 일이아니다。그러면 『먹어』를 『머거』로 쓰고 『까따』를 『까따』로 쓰는 것이 조혼가? 그와 反對로 『머건』를 『먹어』로 쓰고 『까따』를 『까따』로 쓰는것이 조혼가? 『먹어』와 『머거』는 結局 똑音을 내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된시옷과 雙書는 한갓 조그만 差異니 어느편으로 어떠케 쓰든지 何等의 妨碍가 잇슬리엇다。勿論 어느편으로 어떠케든지 그 書寫方法을 統一하는 것만은 必要한바가 事實이나 저러케 써서는 못쓰고 꼭 이러케 써야만 된다는 聞不容變의 鐵則을 發見치 못한다。眞一 朝鮮語를 가저 漢字로 改綴해노코 본다면 그 얼마나 無端한 是非라는것을 一見에 할일수 잇스니 그들은 **天下**의 大眞理를 다토고 잇는것가치 陣營을 分立하고 徒黨을 糾合하야 互相論難에 論戰을 거듭하고잇스되 要컨대 小題大做에 不過한다。까다렵고 어려워 귀찬키자 漢語의 綴字以上 더 넘어갈 것에 업건만 그래도 英語는 國際上 巨大한 勢力을 占領하기에 이르럿스니 그러라고 英語의 困難한 綴字를 欽慕한다든지 朝鮮語의 綴字統一을 拒否할것은 아니겟지만 全言語問題를 代表하도록 綴字問題를 큰 問題로 삼을것이 업다는것만은 證明키에 足하다

◇

勿論 한편에서는 『ㅎ』音바침 不用을 主張하는데 對하야 다른 한편에서는 『ㅎ』音바침 可用을 固執하고 한편에서는 『먹、머그、머거』를 한 **單語**의 變化形態로 따지는데 對하야 다른 한편에서는 『먹』을 語幹으로 『으니、으며』나 『어』를 토로 보고잇는 等 兩派 서로 자긔의 綴字法을 다 각각 理論化하고잇다 眞一言語學을 잡아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綴字에 對한 이 兩派의 理論을 듯는다면 甲이 아니면 乙이요 乙이 아니면 甲으로 두편 中 한편의 擇擇을 强制當하는 듯이 생각할는지도 모른다。그러나 果然 『ㅎ』音을 바침으로 쓸수잇다고 하자。『조호니』 『조호면』 『조하』로 써노코도 바침의 『ㅎ』音이 토의 『으니、으며』나 『아』와 連結됨을 說明한다면 그뿐이 아닌가? 또 果然 『먹』이 語幹이요 『으니、으며』와 『어』는 토라고 하자 『머그니』 『머그면』 『머거』로 써노코도 바침의 『ㄱ』音이 토의 『으니、으며』나 『어』와 連結됨을 **說明**한다면 그뿐이 아닌가? 『좋안』나 『먹어』로 쓴다고 하더라도 『조한』나 『머건』로 읽을것인 以上 『조하』나 『머거』로는 絕對 못쓰고 『좋아』나 『먹어』로만 써야 한다고 욱일것이 조곰도 업다 『좋아』 『먹어』로 쓴다고 語幹의 바침과 토가 連結되야 發音함을 防止할수도 업거니와 『조하』 『머거』로 쓴다고 語幹의 바침과 토의 本質的 區別이 決코 消滅될것이 아니다 鷄卵을 뼈족한 쪽으로부터 깨먹으나 편편한 쪽으로부터 깨먹으나 그끔의 問題로 疑代의 戰爭을 이러킬것은 업지 안할가? 綴字는 統一을 要하여야 할만큼 鷄卵을 깨먹는것과 가려 自由放任은 許할수 업슬망정 그저 어느 한편으로 統一을 取하면 고만이 아닌가?

◇

더구나 된시옷과 **雙書**의 다툼에 이르러는 된시옷을 雙書로 고치자고 主張하는것이 부질업는것 가티 雙書로 고치어 쓰자는것을 다시 된시옷으로 돌아가라고 固執하는것도 쓸데업는 일이다。아모려케 써노코든지 『가다바자사』의 强音以外 더 다른音을 내지 못하려니 空然한 다툼으로 一般을 眩惑케 할 必要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아니 『ㅅ』音은 된시옷을 하나 雙書를 하나 結局 마찬가지로 그 本來 된시옷과 雙書의 다툼으로부터 超然해잇는터다。서로 岐異만을 조하하는 그들에게 對하야는 或 不幸한 **一致**일는지 아지 못하나 그들의 空然한 다툼을 立證하기 爲하야는 絕好의 材料다。

對米關係五十年史

駐米最初朝鮮公使 (74)

湖岩

定舘視務開始

【朴】公使는 國書를 奉呈하고 白舘을 退出하자 이날 午後二時에 다시 李完用 李采淵 및 安連(알련)을 더리고 新任人事次로 各國公使와 各部長官을 巡訪할새 美國慣例에 依하야 到任順序를 따라 在(와싱톤) 二十八個國公使中에서 먼저 『하이지』(Haiti) 公使를 차젓고 葡萄牙 伊太利 白耳義 英吉利 墨西哥 俄羅斯 佛蘭西 瑞西 布哇 和蘭 伊米突 獨逸 日本 瑞典那威 亞然丁 巴西 西班牙 中國 智利 土耳其 奧地利 古修都理加 尼加拉加 瓜他馬拉 古倫比 丁抹 委內瑞拉等의 公使를 차례로 차자서 門外에 名啣을 두엇스며 그다음에 各部長官을 轉訪하엿는데

【外】部長官 『빼이야드』는 아까 該部에서 맛낫슴으로 그는 찻지 안키로 하고 다만 度支長官 陸軍長官 海軍長官 內部長官 遞信長官 法部長官 農部長官 大審院長 및 그副長等 十六人을 차저서 各公使舘에서와 마찬가지로 門外에 名啣을 두고 도라와섯다 이날은 너무 奔忙하야 國書奉呈한것을 미처 本國에、알리지도 못하엿다가 翌日에가서 비로소 大內에 奏하야 『顧五呈書 上端已過 兩端碼機』라고 하엿다 이는 대개 十二月五日 國書를 奉呈하엿는바 另封의 上端인 同註一事는 발서 지내갓고 그餘 兩端인 席次와 要事相議는 『形便을 따라서 조토록 하겟다는 意味이다 이날(初六日)

【午】後二時 『榮媄太』호텔에서 새로 公使舘에 移居하고 定舘視務하는 뜻으로 美國外部에 照會하니 그 照會文은 左와 如하다

大朝鮮欽差駐紮美國全權大臣朴定陽爲照會事 照得本大臣於本月初六日 賃得華盛頓第十五町一千五百十三番地皮瑞屋 定公舘入處 自今初七日視務察印 玆煩 貴長官知照並請 貴長官均布內外官民各國公舘 咸使知悉 爲此相應備文照會 須至照會者

이 公舘은 붉은 鍊瓦의 三層洋屋으로 南向의 新築이엇스며 應接室 執務室 寢室 食堂 浴間 便所 倉庫까지 具備하엿고 最上層의 前面에는 露臺가 잇섯는데 거기 長竿을 세우고 【太】極國旗를 놉히 다럿다

賃金은 一個年에 銀貨七百八十元이니 一個月에 六十五元이 되는바 春夏秋冬 四期로 分하야 四期 첫달 十五日에 三期條 一百九十五圓을 先給하기로 約定하엿스나 公舘財政은 이 賃金의 支出에도 오히려 困難했든 모양이다

公舘을 定하고 事務를 보게 되든 各國公使들이 回謝次로 連日來訪하야 門外에 名啣을 두고 갓는데 그中에는 日本公使 赤羽四郞도 잇섯다 그翌日에 朴公使가 淸國公舘을 차저갓고 또 그翌日에 日本公舘을 차저갓드니 赤羽가 아주 歡曲하게 굴엇슴으로 朴氏는 感激하야 同隣交誼가 다르다고 하엿다

얼마뒤 署理公使로부터 모서온 【嘉】宗의 御眞과 世子의 睿眞을 公舘에 奉安하고 外方遺伯의 例에 依하야 초하로 보름 마다 公使一同이 望拜의 禮를 삼가 行하야 戀慕의 忱을 表하엿다

公舘에는 朝鮮에서 더리고 간 下人이 잇스나 거기 事情에 生疎하므로 特히 黑人二名을 雇傭하야 使役으로 씨섯는데 最初에는 每朔 三十五圓씩 주다가 그後 四十五圓씩 주엇다 그러나 그네들이 不美한 行動을 마히하야 畢竟 쫏겨나고 말앗다 한다

美國人 參贊官 『알렌』도 그 妻子를 더리고와서 公使舘 近處에 집을 定하고 【每】日 公使舘에 仕進하야 한가지로 視務하엿섯다 이리하야 美國京城에 朝鮮公使舘이 생기게 되엿다。

【參考】 高宗二十四年丁亥十二月初五日 [illegible] 大臣朴定陽이 『國 [illegible]

利己主義論 (二)

黃郁

苟且하게 享樂을 엇고저 함에 그들은 더욱더욱 享樂을 **渴求**하게 되고 享樂을 渴求하게 됨으로 그들은 더욱더욱 利己主義的이 되지 안을수 업다。더욱이 그들은 數만흔 享樂의 맛을 알고잇슴으로 그것을 엇지 못하면 苦痛까지도 늣기게 된다。享樂에 中毒되면 阿片 그것과 다름이 업는것이니 온갓 醜惡과 破廉恥를 다하여서라도、그것을 엇으려한다。

그럼으로 사람은 享樂을 求하지 안코 지나기는 쉬우나 苦痛을 避하지 안코 살기는 괴로운것이다。그럼으로 또 사람은 積極的으로 享樂을 조출때보다 苦痛을 避하려할때 더욱 더 深刻한 利己主義者가 되지 안을수 업는것이니 이러한 根據로 하야 이 享樂的 利己主義의 勢力은 한갓 知識**青年**들 사이에만 뻣처잇지 안코 그것은 좀더 深刻한 形態로 半知識層 사람들、또는 아주 下級小뿌르層 사람들 사이에까지 그 손을 뻬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이처럼 利己主義的 思潮가 一般의 深境의 惰惡에도 不拘하고 작고 **蔓延**됨에따라 世波는 더욱 거츨어지고 世相은 더욱 험상구저서 사람의 生活은 더할수업시 괴로운것이된다、元來 이 深刻한 利己主義思潮는 中產階級은 조고만 事業조차 엇을수 업고 勤勞거금이 生計를 세우기 힘드는데서 생겨난 現象이겟스나 적구로 이 深刻한 利己主義思潮가 더욱 世上을 險惡케 하며 生을 괴롭게 하는것도 事實이다 이 두가지 險惡스런 現象은 서로 原因이 되며 因이 되여 **漸漸** 그 險惡을 깁흔 泥濘 속으로 끌고 드러간다

그러나 萬物은 流轉한다。이러한 現在의 事態도 한 人類萬古의 痼疾은 아니다。이처럼 나날히 深刻해지기만 하는 利己心과 險惡하여지기만 하는 世相도 結局은 人類의 經濟生活을 土臺로 하는 社會의、一個表面現象에 不過한것이요 過去에 잇서서 여러번 그러하엿스니 잠간 **過去**의 事實을 들어 이 얄미운 利己主義의 盛衰의 자최를 차저보기로 하자

(二) 利己主義의 浮沈

원社會의 生產이 全혀 奴隸의 손으로 되고잇슬때、떨어서 만흔 自由人이 直接生產에서 自由로울때、그때 一般自由人의 關心은 오직 戰爭과 政治와 哲學에만 향하엿섯다。

一純粹演劇을目標로一 三一劇場公演準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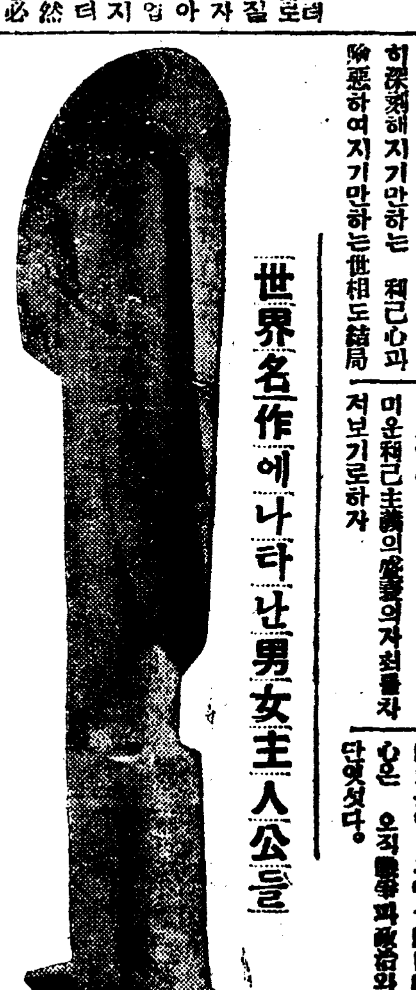
一來十一月中公演豫定이라고一

【東京】 동경삼일극장(三一劇場)은 일본에 유일한 조선인 극단으로 일천구백삼십년에 『조선 푸로레타리아 연극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어 『동경 조선말극단』으로 개칭되고 다시 『삼일극장』으로、고처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극단으로 공연을 거듭해오더니 금번 침체에 『일본푸로레타리아 연극동맹』이 해체되고 일반푸로극단의 해체와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단원들은 그동안 신중히 장래의 취할길에 대하야 고려한결과 순전한 연극예술가집단으로 갱신하기로 결정되어 십월일일부로 성명서를 발표하엿는데 이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하야 십일월중에 귀별공연을 공개하고 동시의 극단의 명칭도 새로 지흐리라고 한다。

파우스트·銀行出納係

世界名作에 나타난 男女主人公 (二)

書希靜



即 『파우스트』가 어떠한무엇오 참으로 滿足하야 其瞬間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부르짓는때에 그의 生命과 靈魂은 惡魔의 손으로 드러가야만 된다는것이다。

『이와가치해서 世上과도』 사람들과 絕緣한 學者의 隱遁的生活보담도 世上으로 即生의 舞臺로 뛰어드러가서 情慾과 싸와서、이것을 克服하는것이 참으로 人間에게 價値잇는 行爲라는것을 그는 『파우스트』는 깨다럿든것이다

그한편、惡魔는 쉬지안코 『파우스트』를 官能과 愛慾의 世界로 끌고드러가서 그의 靈魂을 墮落식힘으로서 神과의 競爭에 이길려는 것이다。이러한 目的을 가지고 그는 『파우스트』를 于先 『小世界』의 諧相속으로 끄러넛는 第一步로서、『아우어-밧하』 酒舍로 데리고 가서、大學生들의 『亂醉와蠻行을 求景식힌』 後에 그다음에는 이때까지 無理하게 不自然하게 抑制되어잇든 『파우스트』의 人間의 衝動中에서도 가장 굿센 異性에의 愛着을 利用해서 그의 目的을 達成코저한다。『파우스트』의 內面的革命과 또 至今부터 始作되려는 新生活을 象徵的으로 表示하기 爲하야 妖女가 調合한 魔藥 마신 『파우스트』는 白髮老人으로부터 紅顔의 美靑年이 된다。그리하야 그는 天使와가치 아름답고 純眞하고 『可憐한少女 그레-트헨』을 맛나게 되다。

『파우스트』는 그 少女의 美와 純眞에 끌려서 熱烈한 사랑을 바치게 되엿스나 惡魔는 最後까지 『파우스트』의 純潔하고 無垢한 사랑보담도 그의 官能的 肉感的 情慾을 煽動해서 『파우스트』의 靈魂을 그속으로 모러너흐려고 한다。그러나 『파우스트』는 여기서 自然이란것은 흉측하게도 가장 崇嚴한것과 가장 唾棄할것을 또 가장 純潔한것과 가장 醜惡한것을 種族保存의 衝動에다가 結合식힌것을 깨다럿스며

『[illegible]』 [illegible] 도 美에 醉한 感覺도 이모도가 同一源泉에서 소사나오는것도 깨다럿다。어려하야 可憐한 『그레-트헨』의 품속에서 至純한 사랑을 맛본 『파우스트』는 決코 肉慾의 [illegible] 하고 墮落하지는 안헛스나 그러나 이 사랑때문에 그는 뜻하지 아니한 여러가지의 [illegible] 여러가지의 苦惱의 苦杯를 마시지 안을수 업섯다。即 『그레-트헨』의 어머니는 『파우스트』의 [illegible] 『그레-트헨』이 먹인 『잠藥의 過量으로 因하야』 世上을 떠나게 되고 또 이 事件으로 激憤한 그레-트헨의 오라비는 『파우스트』의 칼을 마자 누이를 원망하면서 죽어버린다。

漢詩

碧梧山人 考選

仲秋月

選外佳作八

高敞 殷蒼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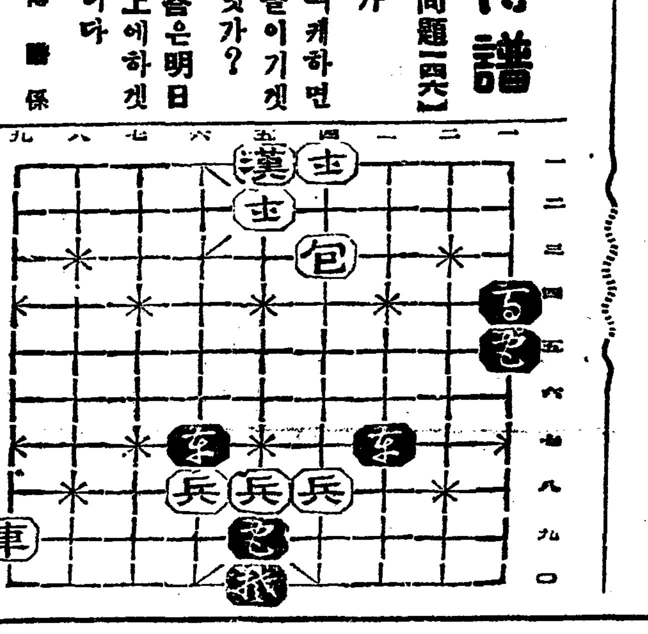
秋半淸宵月滿城
幾人吹笛答歌聲
光穿簾罅窓間素
影徹天涯地角明
草樹散陰凉露滴
河山如洗累塵晴
縱然復覩唐虞世
念到災民感慨生

博譜

【問題一四六】

楚가 어떠케하면 漢을 이기겟슴닛가? 解答은 明日紙上에 하겟슴니다

博譜係



蘇峰 德富猪一郎著

近世日本國民史

普及版

蘇峯先生이 十七年間心血을짜낸 一代의大著 世界的大長篇『近世日本國民史』五十卷의 完成記念으로서 驚異的廉價의 普及版나옴

× × ×

織田氏時代부터 維新回天의 序幕까지、先生이 愛國의 精神에 불타는 熱誠으로 써、嚴明公正히 써내신 一大劇史!

特典 著者로부터 全購讀者에 對하야 著者의 肉筆原稿에 近影을 添付한 額面用의 記念品을 無漏히 贈呈함

特製豪華版 新四六版總크로-스 每卷約六〇〇頁의 美裝本

豫約價 (他에送料實費)
每月拂 (組合二冊分) 二圓五十錢
一時拂 (五十卷分) 五十五圓

豫約者에만 頒布 絕對로 分賣치안음

期限 十一月五日

內容解說書進呈 (全國書店에도잇슴)

內容解說冊子送呈

第一回配本 (申込順으로即時配本)

織田氏時代 前篇

混沌한戰國時代는舊組織을分解하야 潑剌淸新한新時代가오는前奏曲이다。이重大時機에잇서尊王을提唱하야國民史에登場한大英雄은織田信長이엿다。信長의出現은大和民族에永遠한希望과자랑을주엇다。

彼理(페리)來航以前의形勢

德川時代는末期에밋처政弊그極에達하고暗澹한內部闘爭은頻出하고더구나外患은더욱더욱切迫하엿다。祖國日本의運命은如何히仰望하라 이가튼때이가튼경우에잇서서 孝明天皇의御宇가되고明治天皇御降誕을拜한祖國隆運

東京神田區錦町一丁目 株式會社 明治書院

堂堂! 이五十卷

1	織田氏時代 前篇
2	織田氏時代 中篇
3	織田氏時代 後篇
4	豊臣氏時代 甲篇
5	豊臣氏時代 乙篇
6	豊臣氏時代 丙篇
7	豊臣氏時代丁篇 朝鮮役 上卷
8	豊臣氏時代戊篇 朝鮮役 中卷
9	豊臣氏時代己篇 朝鮮役 下卷
10	豊臣氏時代庚篇 桃山時代槪觀
11	家康時代上卷 關原役
12	家康時代中卷 大阪役
13	家康時代下卷 家康時代槪觀
14	德川幕府上期上卷 鎖國篇
15	德川幕府上期中卷 統制篇
16	德川幕府上期下卷 思想篇
17	元祿時代上卷 政治篇
18	元祿時代中卷 義士篇
19	元祿時代下卷 世相篇
20	元祿享保中間時代
21	吉宗時代
22	寶曆明和篇
23	田沼時代
24	松平定信時代
25	幕府分解接近時代
26	雄藩篇
27	文政天保時代
28	天保改革篇
29	幕府實力失墜時代
30	彼理來航以前の形勢
31	彼理來航及其當時
32	神奈川條約締結篇
33	日露英蘭條約締結篇
34	孝明天皇初期世相篇
35	公武合體篇
36	朝幕背離緖篇
37	安政條約締結篇
38	朝幕交涉篇
39	井伊直弼執政時代
40	安政大獄 前篇
41	安政大獄 中篇
42	安政大獄 後篇
43	櫻田事變
44	開國初期篇
45	久世·安藤執政時代
46	文久大勢一變 上篇
47	文久大勢一變 中篇
48	文久大勢一變 下篇
49	尊王攘夷篇
50	攘夷實行篇

漁船四隻出漁中 三十餘名이失踪

九月末出漁하야尙今無消息 暴風에沈沒된듯

【新浦】 함남리원군동면장원리(咸南利原郡東面長遠里)리창률(李昌律)의배가강원도근해에서조난당하고선원칠명은수중고혼(水中孤魂)이되엿다함은본지에임이보도되엿거니와그동리배진선(裵鎭善)의배와동면문성리(東面文星里)안동엽(安東葉)의배, 김흥삼(金興三)의배, 엄성학(嚴成學)의배네척도또한 지난구월이십구일경에 전긔 리창률의배와 가티고등어를 잡으려고 출어한후이내 십월십이일까지 십여일이되도록 소식이묘연하야 승조선원 삼십일명의가족일백이십여명은 혹시 바다물가운데서 참혹한 변을당하지나안하엿슬가 문자그대로 바다물을내다 보기에 겨를이업는지경으로서 공포와불안에 싸혀잇다는데 그주조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裵鎭善의船員 長遠里 姜用模(四○) 李今善(三八) 平安道中和郡 金河鉉(三?)長遠里 姜周三(三八) 姜完鎭(二三) 姜觀寬(二四) 姜觀燮(三?)

▲安東葉의船員 長遠里 姜正模(三二) 姜享燮(二八) 端川沙富津 李昌岩(三一) 李昌善(三五) 文星里 李明郁(三三) 劉昌一(三五)

▲金興三의船員 文星里 李鳳雲(三六) 李景春(三二) 李三孫(三○) 金泰柱(三○) 張鳳南(二九) 金孫奉(二二) 金英模(二二)

▲嚴成學의船員 嚴泰燮(三五) 嚴泰玩(二二) 嚴泰卿(一八) 安守萬(三五) 崔瑞一(三一) 金禹天(三三) 崔斗學(三二) 安秉宋(三二)

沙里院法院支廳은 來月一日부터開廳

舊朝鐵出張所에서

【沙里院】 오래동안 재녕 과사리원사이에 재녕법원 지청이전문제로 반대운동과 설치운동이대립되여 맹렬한운동을 계속하는일방 당국의처치만을 주목하야오든바 지난십삼일 『라디오』를통하야 법원지청을사리원으로 이전하게되엿다는 소식을 듯자 사리원시민들은 매우긴장하야 벌서부터가옥과 토지등의 매매열이 대두하며 일방법원청사는 오는십월일일부터 전조철출장소(朝鐵出張所)집을빌어림시청사로 사용하게 되엿다고한다

平南道明年度의 救窮工事全貌

橋梁新架에卅萬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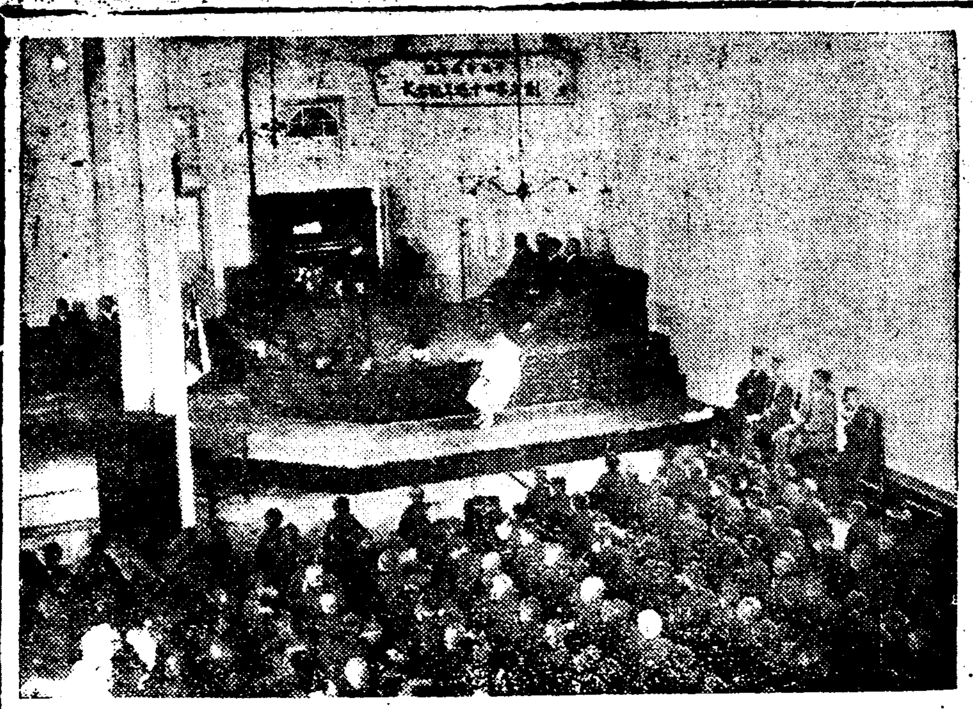
【平壤】 평남도에서는명년도 국민구제공사에의한국고보조가 대체로 결정되여서 토목사업에 관한방침을 세우고 조사를하든 중아즈음에곳을맛추엇는바그에 의하면 가교(架橋)에만 주력하고도로수리는행하지안키로결정되엿는데 가교예정은

▲朝陽橋(順川、永柔間) 工事費 五萬圓
▲岩石橋(順川、東岩間) 工事費 五萬圓
▲陽德橋(陽德邑) 工事費 一萬五千圓
▲漂樹橋(价川、北院間) 工事費 一萬五千圓
▲溫和橋(寧遠) 工事費 四萬圓
▲聖山橋(新倉、殷山間) 工事費 四萬圓
▲東明橋(成川邑) 工事費 八萬圓
─以上一、二等道路─
▲杉浦橋(院山、飯山間)三等道路 工事費 一萬五千圓

등으로 그에요하는 국고보조는 삼십만원인데 그외에 명년도의 토목비가 례년에 의하여사오만원을 계상케될것으로서 그와가티가교에 삼십만원을 투입케된다면 명년도에 하여야할

▲平南線(平壤、鎭南浦) 一部鋪裝 工事費 二萬圓
▲平原郡肅川面陵路面改良工事費 二萬圓
▲安州邑市街改良 工事費 二萬圓
▲其他 管內各線橋梁修理工事費 六萬圓

동의예산이 업서지는것으로 결국전긔가교예산중 일부에서 오륙만원이 갈리워저야 할것으로 그때에는 성천의 동명교가예산에 빠지게 되지안흘가 생각된다고한다



砂防工事中止로 四百餘의失職群

압날의生路가漠然

【丹城】 경남산청군단성면에서는 소화칠년부터 사방공사가 시작되여 하로에사백여의 빈농민과 실업자가일일임금 이삼십전에 그날그날의 생로를이어나오다가 수재지의 구제책으로함안에서 사방이시작되여공수를 독을함안이년동시로보내게되고 단성사방은 금월십일부터 일시중지하엿다가 래년이월에 다시시작하게 되엿슴으로 사백여명에생도를 구하고잇든 사백여명이압호로사라갈길이매우막연하다한다

獎明講習所 期成會組織

【文坪】 덕원군북성면에서는 창명강습소교사 문제에 대하야 수년전부터 그긔성을 열망하여오든바 지난구월중 이것이구체화하야 강습소장 강병두(姜炳斗)씨와정길봉(鄭吉鳳)씨진석봉(陳錫鳳)씨라경철(羅經喆)씨외제씨들의 발긔로 긔성회를조직하고 그긔본금은 면민에게모집키로하고 방금신축에 착수중이라는데 느저도 명년봄에는교사신축을보게되리라한다

釜山第二商校 廿五週年記念

展覽會、廉賣會開催

【釜山】 부산제이상업학교에서는 오는이십팔일 동교강당에서 창립이십오주년 긔념과동교졸업생의 긔금으로 잔교장복사데평(四十坪)식을 긔부한복사선생 긔별도서관 락성식과동선생동상제막식을아울려거행하리라는데 남조선에 일홈이자못놉흔 이상(二商)의 하이데로베르히! 모교를 사모하는 동창제군은 당일만히참석하여 주기를 바란다하며 동교이십오주년긔념경 생도들의 실습을위하야 이십칠일부터 이십구일까지삼일간 다음과가티 전람회와직매회를개최하리라고한다

第一會場 (慶尙南道産業陳列館) △道內各學校職業科製作品展覽即賣會 △日用雜貨實習販賣會 △全國商業學校生徒成績品展覽會

第二會場 (釜日會館三階) △內外포스타-展覽會 △國內改良展覽會

宣敎五十週年

慶北老會祝賀會

【大邱】 긔보=조선예수교장로회 선교오십주년 경북로회축하대회(朝鮮耶蘇敎長老敎會 宣敎五十週年 慶北老會祝賀大會)는금십팔일오후칠시반대구남성정(南城町)제일례배당에서 성대히 열게되엇는데 동대회진행절차는 십팔일밤 길선주(吉善宙)목사의 개회강설을비롯하야오는 이십일일까지 매일다음과가튼순서로모힐터이라한다

普通集會
▲自午前五時至午前六時 祈禱會 吉善宙
▲自午前九時半至午前十時半 工夫會 吉善宙
▲自午前十時五十分至午前十一時四十分 工夫會 馬布三悅
▲午後二時至午後三時 工夫會 吉善宙

特別集會
一、祝賀音樂會 十九日夜
二、記念祝賀式 二十日午後二時
三、各褒賞式 二十日夜
四、記念禮拜 二十一日午後一時半(啓星學校運動場)
五、祝賀行列 二十一日午後三時

(사진은대회회장)

麥作改良傳習

寶城農會主催

【寶城】 목하조선농촌의피폐를 구제함에는 무엇보다맥작개량이 제일 긴급하다고늣긴보성군농회에서는 특히 맥작개량비삼천사백원을 계상하고 획긔적으로 개량식을 철저히보급시기기위하야 군을삼구로 분하야본월구일에는보성, 웅신사일에는 벌교 복내(福內)동십사일에는 벌교(筏橋)에서 우경용인(牛耕傭人)과지방중심 인물을 주체로맥작개량파종법개선의 실지강습회를 개최하엿는데 강사로림정회(林貞和)백지홍(白知洪)량씨가 전담에 쟁기를가지고가서실지로 개량식의전부를 전습시긴바 이상삼개소에 집합한전습생수는 약팔백명에달하야 공전의대성황리에원만히종료하엿다 한다

平南道路鋪裝

明年度부터着手

【平壤】 평남도에서는시험적으로평양, 이동도로로 로면포장을하여보든바 성적이량호하여 압흐로는 먼저평남선부터 ... 하기로 결정되여 공비약이 서부터 약상 ... 드는장을 모내 주요 ...

渡津橋開通으로 渡船은廢止決定

그러나民間에서繼承

【釜山】 부산의자랑꺼리인북도도진교(渡津橋)가 십일월중순부터 개통하게됨에따라 오래동안 물편을끼처오든 도선(渡船)의영업을폐지하게 되엿다는데 도잔교조양긔(跳揚機)개폐시간이 두시간만에 이십분식임으로 그동안교통이 두절될것은몰론 급한사고로 왕래하는이에게이십분이란 시간을 기달리게한다는것은 용이한문제가 아니므로 도선영업을 계속함이편리하다는 말성이잇서 부당국으로는 이미 도선을폐지하려고 다리를노아 부로서는 영업을게속할수업는 형편이므로 민간측에서 이를계승키로하야 방금그적임자를 전형중이라는데 종래의 순항선(巡航船)을 경영하든 회사가희망하고잇다고한다

崇德普通學校 四十週年記念

二千餘名會集의盛況

【平壤】 긔보=창립사십주년의깃븜을 마지한 평양부내관후리(館後里)재단법인숭덕보통학교(崇德學校)에서는십오일오전아홉시부터 장대현교회당(章臺峴敎會堂)에서『반석에귀초두렷한우리숭덕!』의 교가(校歌)로시작하여 석대한 긔념식을거행햇는데 학부형 교인등이천여명이회집하여 성황을 일우엇섯다 긔념식이 파한후 동교정에서열니는 축하대운동회는 삼십여종목의 각종경기를 깃봉에날뛰는오백여명 아동의 활무대회하게되여 운집한관중의 박수환호를바닷다

◇사진은同記念式場光景

農地令實施에伴한 各地의巡講과打合

【公州】 농지령 발표에 대하야 충남공주군 에서지난십삼일오전 십일시경에 당지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지주와사음소작인등을 회합하야 농지령강화가잇섯스며 다시좌긔시일에 각면순회농지령 강화를 한다고한나

十月十四日 木洞面灘川面▲同十五日鷄龍面反浦面▲同十六日長岐面 ▲同十六日講堂面▲同十七日正安面▲同十八日牛城面▲同十九日寺谷面▲同十八日新下面▲同十九日新上面▲同二十日寺谷面

【新義州】 래이십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령의취지를철저케 하기위하야 평북도에서는근동(近藤)농무과장강긔소작관(岡崎小作官)이하각직원이금월십이일부터십육일까지연선각지에출장하야 간담회를 개최하얏다 또한신의주에서는 래이십오일부내지주약삼십명을부회의실로소집하야 간담회를 개최하려라한다

火賊林巨正 (25)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二의七

로밥이의 집이란것이 후미진곳에 외따로무든 옹집이라 집전채가 곳 박한간인데 그방에 거적을 메달은 문이잇고 또 조이를 부친 창구녁이 잇건만 침침하고 유산한 방안이 널직하게맨든 초빈속과 비슷하얏다 꺽정이가 거적문을 치어들고 방안을 드려다보다가

『이런속에서 사람이 엇더케 산단말이냐』

하고 여페섯든 로밥이를 돌아보앗다

『안옥한맛이잇서서 조흡니다 메칠 기서보실랍니까』

『네기 미친놈 하로밤 자기두 답답하겟다』

『이방을 답답하다시면 좁은 굴속에선 잠시를못지내시겟네 저는 철원잇슬때 겨우 다리뻣구 누을만한 굴속에서 일년이래 지냇습니다』

『네가 철원서 살인하구도망한놈이냐』

『살인이라니요 말만 들어두 끔찍스럽습니다』

『철원서두 내일음가지구 도독질해먹엇지』

『해인을 혼내느라구 한짜를 잠간잠간 빌어씃습니다』

『인제 알구보니 네가 꼬철원잇든놈이야』

『무슨 귀거슬리는 소문을 들으신게 잇습니까』

『살인자구 도망햇단 소문을 들엇다』

『살인햇단 악명만 뒤집어썻지 실상 살인한일은 업습니다』

『누가 너를 애살시킨다기에 발명이냐』

『억울한말슴을 하시니까 자연 발명이 나옵지요』

꺽정이가 빙그레 웃기만하고, 억울한사정을 물어주지안는까닭에 로밥이는 제풀에이야기를 시작하얏다

『제가 어느때 하루종일 굶구 자는데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잘오지안습듸다 그래서 무엇을 좀어더먹을까하구 각가운 동네에 단내외사는집을 차저 갓습니다 그내외가 다사람이조흔것은 전부터 짐작하는처집지요 방안에 볼은 키엿는데아무긔척이 업서서 문구멍을 뚤쿠 드려다보니 서방놈은 아랫목에 안젓구 기집년은웃목에 안저서 마주바라보구잇는데 중간에조그만떡시루하나가 노혓습듸다. 제가 마침 잘왓구나 생각하구 문을 열구 들어서습니다 내외년놈이 다 저를처다보면서 말이한마듸업서요 제가어이업서서 한참우두머니 섯다가 우선떡이나 좀먹구 이야기할 배장으루 시루아페와서 떡을떼어먹는데 한레를 다먹구두레를 시작할때 웃목에잇는 기집년이 아이구 저것봐다 먹겟네 말을내자마자 아랫목에잇는 서방놈이 인제떡은 내겨다 하구조차와서 떡시루를 끌어안읍듸다 나중에아니 그년놈이 다 흉악한 떡보라조그만 시루하나가지구 홀의량이 차지못하는까닭에 내외간에 누구든지 말을 먼저하는사람은 떡을못먹기루내기를 햇드랍니다 그때제가 그걸 알엇드면시루를 끕게내주구 왓겟지요만 막 맛잇게먹는것을 시르쪠 빼스려구하는것이 괘씸해서 서방놈을 떼다박질럿드니 손에 살이잇든지그놈이 시루를 안구잣바지며 곳 전장을 처다보겟지요 이래서 제가 살인악명을 뒤어쓰게되엇습니다』

『천생 너가튼 미친놈의 이야기다』

꺽정이가 껄껄 웃는데 개도 한여페서 낄낄 우섯다

『이야기 고만하구 저녁밥을 얼른지어서 잠숫게해야지』

하고 로밥이는 방안에 들어가 살핀바아지를 들고 나와서 한데걸린 곱놀솟에 밥을 짓는데 꺽정이의 졸개와 십년사귄친구가티 서로 너나드리하며 가치지엇다

세게유일의조미료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맛잇는음식은 살이되고 뼈가되고 피가된다고 음식맛은 아지노모도로!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天下의料理業諸位여! 惡醉한손님에게 ノーシン 노ー신을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X光線設備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二)一四五二 樂園洞二三五

巡査就任志望者는오라
警察官養成講義
內地及植民地의巡査志望者는斷然새로운敎授法에依한本會講義書로 申込次第受驗案內付內容見本・全國試驗日割表無代進呈
第一ケ月分一圓・四ケ月分(全)三圓五十錢
東京市下谷區上野櫻木町 振替東京五九七六番 日本行警學會

突飛無謀의大亂賣
定價二圓을特別景品付半額提供
단지壹圓五十錢으로投賣
漢和大辭典
特製豪華版 紙數一千二百頁餘
總頁約二千二百頁
クロース金文字入特裝美本 堅牢函入・裝飾的美本
木版華書三千餘個入=內容豐富
辭書界驚異・母子二萬三千餘
보라・熟語解釋無慮十二萬語
本辭書는右記載와如히堂堂一千二百餘頁의大冊, 特上製本으로厚는實로二寸八分이오 內容은가장斬新式. 皆나學校와卒業하고도自由自在로차저볼수잇서實로理想的인辭書. 今回一千部限하야至急換金키爲하야廉價로投賣함, 殘本, 古本이아님, 昭和九年度의最新刊
●申込은至急을要함 近方에게신분은來店實物보신後買上을歡迎하니다小包荷造送料二十五錢. 代金引換은送料並壹圓九拾錢으로送, 前金으로一時에二冊申込은送料並二圓九十錢, 代引二冊은三圓三十錢에送

一大奮發한大景品
山梨水晶認印 (丈一寸二分徑三分)(上等皮サック入)
御姓名彫刻付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하고漢和大辭典注文者에限하야毎一冊에上記의水晶認印을無代進呈 書體는楷式, 行書, 草書指定하시고 姓名入字數는三字以下로
●振替東京一五○四 東京神田小川町二丁目 積文堂特賣部

胃腸病에 虛弱體에
サロミン
三十醫學博士實驗推獎
豊富한비타민、엔지ー므에强力한酸菌蛋白消化菌을加한 大醫界가推奬한新榮養劑로써斯界의實用을博得하고잇는所以올시다
應用 食慾不振 消化不良 胃腸カタル 虛弱休質 榮養不良 結核休質

柏村博士創製
泄瀉 腹痛
胃腸病第一靈藥
헤루푸
食傷・吐瀉・消化不良・胃腸加答兒等

靴를튼튼케하난
最高級品 HHH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삼에취 크리ー므
本舖 東京 大阪 新藤商店

椿煉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 포마ー드 大.55 小.33

十五日祭禮特別興行 京城神社秋季祭典奉祝! 映畫界に突如として放つ新興キネマ創立三週年記念! 諸君御推薦の二大巨豪篇同時大公開!
新興キネマ初秋超特級現代劇 新興キネマ高田プロ大合同製作 四社聯盟連載 原作久米正雄 脚色西鐵平 撮影三木滋 監督田中重雄
男の掟 全十二卷
高田稔 主演 中野英治・高津愛子 特別出演 律珠子・月田一郞・京城出身淺山健一・荒木忍・小宮一晃共演
寶詩郞石口初秋超特級作 原作 故佐佐木味津三 脚色 梶原金四郎 撮影 吉見滋男 監督 並木鏡太郎
最後の右門捕物帖 二百十日 十二卷
嵐寛壽郞大熱演 嵐德三郎・瀨川路子・川島子惠子・松本田三郎共演
永樂町 中央館

十月十六日부터三日間 十月十七日은祭日임으로晝夜三回興行 時間은午後二時半・七時半
메트로社超特作品 구라ー크・게ー부르 아네스・도르ー드 主演
活劇 男性의血潮 全十卷
松竹키네마社超作品 時代名篇 無宿深編笠 全十卷
市川右太衛門・歌川絹代 主演 (무숙자는 아미가사)
次週─(일설구쟁)
黃金町五丁目 第一劇場

新舞臺 安東縣一回訪問公演
本社直屬新舞臺巡廻公演 新舞臺訪問公演連日滿員御禮!
十五日부터 團成社

穀協大會縱橫觀
穀商自衛策과 其他 【3】
申泰翊

穀物商의自衛策 即自己들의營業上 威脅을 밧게됨을 따아서 그對策을 세우라 하는것을 가리켜서 하는말이다 그런데 무슨까닭으로 穀物商들이 威脅을 늣기게 되야自衛策까지 講究하게 되엿는가함에對하야 먼저그大體를말하라고 한다

×

米穀도 一商品의地位에 잇다 그런만큼 그市勢는 相當動搖性을 多分으로 띄이게되고 따아서 米穀商들은 그市勢의動搖에 因하야 危險을 늣기는 反面에 利得의機會도 되는것이다 그러나 米穀問題가 날로써 多端케 되야 結局에는 昨年十一月로부터 米穀統制法의實施에 依하야 米價를 公定最高最低價格이란 一定 範圍의限界가 잇게되야 米價는 얼만큼 動搖性을 일케 되고 말엇다 이와가티 됨을 딸어서 米穀商은 利得의機會가 減少케되는것도 必然의勢인데 이것은 日本內地와 朝鮮을 通한 現象이다

×

그러나 米穀問題 그中에 잇서도 가장 重要性을 띄인 日本內地의 朝鮮米移入統制에 對한 論議가 漸次 極端으로 닥아나 오늘에이르러서 朝鮮米移入에對하야 政府가 直接으로 管理하자는 案이 생기게 되엇다 또는 政府의專賣其他 여러가지案이 잇는바 이것은모두 日本內地의 朝鮮米移入에잇서 商人의손을 거치는것을 排除하라고함은 기와 一致되는傾向이 잇다 이와가티되고 보면 移出을 主로 삼는 朝鮮內米穀商들은 存在의意義가 업슬뿐만 아니라 自然的消滅에 맛으게될 運命을 안는것수가업시 되는 고만形勢임에 잇다그럼으로도 한수업시 朝鮮內米穀商으로서 以上의威脅을 防止하라는對策 即自衛策이 必要케 되는것이다

×

그러면 그들이 自衛策을 講究함에잇서 어떠한方法을 取할것인가 自己들의威脅을 맛는다고 해서 正面으로朝鮮內 米穀商과 資本家를내세우고 對策을세우는것은 스사로곤 反響이 적을것을 豫하엿는모양이다 이것은무슨납인가 하면 오늘에잇서 米穀統制란 大局的 問題를 論議하는이때에 一部分에不過한 米穀商側의不利를 理由로써 大局的問題를 左右치못하게 될것을 잘알고잇는때문이다 그래서自衛策을 講究하는方向을 돌려하야 米生産者와 握手를 하여가지고 共同步調 即 全朝鮮이란 大看板을 압장 세우는 立場을 打開하라는바가 잇는 히 包含된것이 거의事實일수잇다 그러대 이곳에서 所謂米生産者라고 한은 어떠한層의 사람들을 가르켜서 한말인가하면 米生産者 中에잇서 少數의大地主階級을 意味한것인데 가령例를들면 鮮、不二興業其他等이다 이런 人物들이 朝鮮穀物商聯合會와 聯合會의 看板을 떼어바리고새로운朝鮮穀物協會聯合會의 組織을 넘기게된것이다 그래고 穀物聯合會의 目的으로 「穀物의 生產改良增殖、商取引의 統制改善、販路의 擴張及會員의 融和發展」 이라는 表面的 美名을 걸게된것이다

×

米穀商의 自衛策으로朝鮮穀物聯合會의 새看板을 걸게 되엇는가하면 그런것은아니다 그自衛策이 主로된것은 勿論이나 從으로도 會員의會費徵收關題도 包含된것도 事實이나 ─(續)─

米穀對策趨向과輪廓
農林省態度는 朝鮮米壓迫에邁進
◇……漸次本格的舞臺가展開
不安機運益益濃厚

米穀對策調査會는이마特別委員會가 끗나고 目下에는小委員會가 열니여 米穀對策의 具體案樹立이 漸次本格的舞臺로 展開되고잇다 그런대 農林省의態度는 一時될수잇는대로 差別을避하라는傾向이 잇서보히든바最近에 일으러서는 米穀對策을 樹立함에잇서아보라케하여도 朝鮮米를 差別치안홀수가 업게되다고 露骨的으로 變하는傾向이 顯著케되다 그럼으로 將次決定된 朝鮮米統制가 結局에는 不利한案으로 落着을 告케될形勢가 만케되야 朝鮮米로잇서 더욱不安의 念을 안가질수업는局面에直面하엿다고하는말이盛傳한다

政府整理案作成
今月廿五日米調懇談會에提示
三大方針에依하야

그동안 열리엇든 特別委員會에서 政府提出參考案에對한 具體案樹立의方向을 알에와가티 協定키로 三大方針에 意見이一致되엇다

(一) 米穀統制法은 이것으로 存續할것이나 充分히 檢討하야 改正할點은改正

(二) 米穀自治的統制施設은 이것은獎勵助成할必要가잇다

(三) 外地米統制에 關하야 이때 何等의對策을 樹立할 必要가 잇다

以上의三案에對하야 압흐로 農林省손으로 各委員의意見을 參酌하야 整理案이라고 할것을 作成하여가지고 今月廿五日의 第二特別懇談會에 提示키로되엇다 그래서 이整理案을中心으로 特別委員會는 具體案을 作成할터인데 압흐로 一、二回中에 大體米穀政策의 具體的方向이 明白케될것이다 그러고 特別委員會에서 輪廓을決定한뒤 다시特別小委員會를열고 그細目을 評論케될터인데小委員會는 十一月上旬에 열니게될모양이라고한다

外地米統制
諸案의內容

目下進行中에잇는 米穀對策調查會에서 論議되는案中 朝鮮米에 關係가 잇는것의內容을 보면다음과갓다

(一) 各地米를 最低米價로 買上하여가지고 그移出을調節하라는것으로 그實施가될때에는 日本內地米가 低米價에 固定의結果가되나 이것이야말로 外地米를 差別的으로 取扱케하라는것이다

(二) 米穀自主的統制案=이것은 新穀案으로 剩米를 日本內地의需給狀態로推算하고 日本內地와 外地를 [illegible] 生産高乃至는 販賣高等에 比하야 分擔自主的으로 統制케하라는것이다

(三) 管理와自治統制=이것은政友會案으로 一定한區域을 定하고 區域外에移出하는것에對하야 政府가이것을管理하라는것이다 이案은 그區域의決定如何에 따라서 決定될것으로 그外에 民政案은 組合을 設置하야 內外地가 모다行하는案이다。

米倉在米數量 四十八萬餘石

米倉會社의十月現在在庫는四十八萬八百四十一石前月보다 十八萬七千八百四十九石의減少이다 (以下單位石)

釜山	一二一、〇三四
木浦	一〇〇、六七三
群山	一〇三、〇九二
仁川	一二三、二五三
鎭南浦	四二、七八九

產業資源開發과 審議會設置建議
朝鮮商議臨時總會

朝鮮商議에서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臨時總會를開하고 左記議案을上程하얏는데 各會議所로부터 代表理事有志等三十四名出席 總督府로부터 殖産局長、山澤商工課長이臨席하얏다

一、朝鮮商工會議所令改正의件(常議員二名增加에件한)

一、朝鮮產業審議會設置에關한建議

朝鮮產業에關하야 檢討對策키爲하야速히審議會를 設置키를 希望함

理由

朝鮮의產業은 改善發達에 關한하나 現下時勢의消長은到底히 今日의程度로써 滿足할수업다 由來產業은 其關係하는바가廣汎하야 常히內外經濟事情에即應의策을講究하여야할것이다 大正十年에臨時產業調查委員會를設하고 朝鮮日日本內地各方面의 代表的人物을 모아서 朝鮮產業에關한 方策을檢討하고 其根據에基하야各般의產業施設을實行하얏고 朝鮮經濟力의進步와 共同의經濟經路에寄與한바잇섯다 爾來十有五年을 經하얏고 滿洲國興을 契機로 朝鮮의地位는重要을 加하야 內外經濟情勢、監 大變革을 來하는中이며 就中產業上의事情은 正히轉換期에直面하야 各產業의均衡 連絡과綜合에잇서 이에關한諸施設에關하야 再檢討를加할必要時機에達하얏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當局은朝鮮總督府主催下 審議會를急으로各方面代表的人物을網羅한 產業審議會를開催하야 充分한檢討를加하고 現下의時勢에善處하야將來 互하야 가장適切有效한 展望을 期키를希望한다

一、朝鮮產業資源開發에關한建議

現下의國際情勢와 國內經濟事情에鑑하야 見地로서 速히朝鮮產業資源의積極的開發에努力키를要望함

理由

朝鮮의產業資源은 各般을通하야 豐富한 賦存狀態를 呈하고 特히 近來下에 資源에至하야는 種히豐富한 賦存狀態를 現示하야이것의開發이 實로經濟上、國防上 緊急의施策임을 認한다 그런데 朝鮮의現狀은協力不斷의努力을하는中이나 아즉此等資源의開發上의緊切한要求에伴키不能하야 一致하야人力과 財力을傾注하야 極力그經營에 當하지 아니하면 안될 생각한다 그리고 方今國際의 情勢는 各般에亘하야 自足自給을 要할 事態로하야 特히 警戒의 傾向을 呈하고 的共存共榮의 經濟의 關係에 鑑하야 政府는速히國策的見地로朝鮮產業資源의 積極的開發에 努力하야 產業의一大、開發을 期하는同時에 非常時에備하기를 切望한다。

朝鮮產業資源에 就하야 朝鮮의產業은 地上、地表、地下에賦存하는것이 各般에亘하야잇고 品質의比較的優秀한것이 富有야하 現在의蓄積은調査不備로 全、를知悉키不能하나 想像以上으로 多이오나培殖의容易한資源이不少 項一的은認此、產業資源을 記하면 左와如하다

▲農産物 米、大豆、麥、棉花、繭、大麻、苧麻、亞麻、楮、天日草、莞草、蜂蜜、牛、鷄、豚、羊、葉煙草、果實、薄荷

▲林產物 紅松、杉松、落葉松、赤柏松、檀木、赤松、樺、橡、아베마기、藥料植物、菌蕈、五倍子、單寧、樹皮、染料樹皮、樹脂

▲鑛產物 金、石炭、鐵、黑鉛、아루미나、마구네사이트、銅、鉛、닛켈、硫化鐵、水鉛、水晶、亞鉛、텅구스텐、모리부덴、水鉛、아스베스트、螢石、高嶺土、石灰岩、

▲水產物 鮮、海藻、魚介、

以上은鮮의 [illegible] 移出하야其 後의 工業 [illegible] 것이不少

工業者大會 無事終了
提案全部可決

昨紙既報=工業者大會는 十五日부터 京城公會堂에서 開催한바 朝鮮工業協會提案其他 全部六個月은 모다原案대로可決하고 京城과各道로부터 實行委員二十一名을擧하야 에着手하가로 되엇스며 第二日인十六日은 午前十時半부터 懇談會를開催한바 各地와의意見交換의結果 元山으로부터 電氣動力料金低減에 就하야 陳情要望하고 大邱로부터 [illegible] 當局에陳情키로되엇스며 元山으로부터 正租工場等의火災保險料金低減에對하야 希望意見 提出하얏스나 이것은從來에一任키로하야 充分調査硏究한後 善處要望키로 하얏다 午後는三組로 大會를 終了하고 [illegible] 方面各工場을 見學하엿다

農地令에伴할 不動產金融
東拓、殖銀、朝信協議

東拓秋山金融課長殖銀飯島技術課長、朝信高橋技術部長은 十五日 會合하야 農地令實施에 伴하는 不動產金融의 技術的協議를 하엿는데 農耕地의抵當權設定과 擔保金融에關하야 農地令實施로 發生케될諸種의問題에 對하야 三社가協調하야될수잇는데까지 貸出에當한協議하고 다시今後생길諸問題에對하야 그때마다協調하야 調查硏究키로 되엿다

『新米出廻調整으로 相當한價格을維持』
資金三千萬圓의支出로써
▲…十五日荷見米穀局長言明

【東京電話商通】 荷見米穀局長은 十五日 風水害關係府縣部長會議에서 今年新米出廻의 最盛期에는 米價를相當한 價格으로 維持할 必要가 잇슴으로 金融關係를 中心으로 出廻調節케할 方針이며 目下米穀資金三千萬圓을 融通함에對하야 大藏省과 交涉中인데 窮乏地方에對하야는 依然必要에 따아서 廉價로拂下할 意向이라고 當面한政府의態度를 明白히 하엿다고한다

米日爲替少弱

【經濟十五日發聯合】 十五日의米日爲替는 休日前日에 比較하야 賣廿八弗七十四仙으로 四仙低 買廿八弗七十二仙으로 三仙低

東京爲替(十六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五 買 廿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七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錢) 今日比	前日比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鮮白米一石	[illegible]	不變
(白)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買	賣
金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比	前日比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比	前日比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大阪爲替(十六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五 買 廿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七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玉蜀黍市勢
◇每百斤四圓五十錢

【平壤】 平壤日本穀產株式會社에서는 十月十五日市勢를 玉蜀黍每百斤(京義線大同江驛着)에 四圓五十錢으로 多量購入한다고

商工界消息

▲米倉新株募集 米倉會社新株募集은 十五日로부터 正式開始하엿는데 初日까지의申請株數는 二萬二千二百三十株에 達하엿다고

商況 (十六日)

株式 閑散裡에 强保

前場不變 政局不安으로 떠러진듯함이어 今前場은 雙方傍觀하야 休商同樣의閑散이엇스니 即東新百三十七圓二十錢에不變、大新八十八圓八十錢에十錢低、日產百二十一圓七十錢에二十錢高에各大引되고 拓新九圓十錢一本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百三十七圓六十錢에 四十錢高 日產百二十一圓八十錢에 十錢高는 依然保合裏 寄付이고 米是閑散推移이엇다

雙方形勢傍觀 休商同樣閑散

政局不安、動搖、銀行關係、米國財界氣迷、歐洲財界混亂에다가 國內的으로 政局不安을겸처 市勢는 能히 欲伸難伸의 狀態로 勇敢히 買할수업는 反面에무리대고 前途를 크게 悲觀만할수도업서 雙方形勢傍觀의 休商同樣閑散이엇다

日產今後觀 業績顯著良好

日產株는九月以降의一般的市況에追從하야 百十圓前後의 [illegible] 모이엇섯다 當山玉整理時代에 東新株에 保險賣를 하얏든것이 慣例이엇고 그것에依하야 充分히保險賣를하얏든것이 慣例이 잇고 그것에 依하야 充分히保 [illegible] 近의 東新에至하야서는 이미 먼저가히 내려저는때문에 이以上甚한 反落의餘地가 잇스리라고 생각할수업고 從하야 新株의 [illegible] 動、代替保險을 [illegible] 가튼高價保合이던日產 選擇함이 賢明하다하야 日產에對하야 買玉은 投玉과에 [illegible] 하얏든다。 事實日產株는 單純한投資株뿐 이아니오 投機的으로도相當히 人氣가잇는株로서 株價騰落이 [illegible] 材料도 되기쉬울것이다

市場六感

株 株式市場은雙方形勢이니 文字그대로 動이라 閑散이오 休商同樣이라 [illegible] ▲世界大戰以來의傳統人氣도歐洲에서한、당야단이나 나갓스면하고 强氣들은 이은근히바라나 그것도別일업을것가다야失望▲그러나 業績좋은 新公債發行、臨時議會、北鐵交涉成立等이 압에걸처잇스니 이것을도晚秋市勢에期待를 가저보고▲堅實한底堅出勢에 鑑觀으로 打診할이

米 可할지▲閑散에다가 幾氣一崩으로目前形勢不良으로롬 可할지▲何如間보잘것업는 市勢이니 혀에옴것이 업슬듯

米 農村秋事、利害지못한비는지나가고 新米가出廻를재촉하는 日氣는 주어진다▲땀과힘의結晶이라 할수잇는 수확을 나오기시작 한나、그러나南朝鮮의 米作 은 風水害와男負女戴 살길이漠然하야 男負女戴 東西漂泊▲그러나 朝鮮의米作은平年作은 實이다는모양이 나 日本內地의米作은三十年來의初有現象▲兩地의米作

切戶補短한다하더라도 內外를免치못하게 니 米價의前途는 畢竟品貴하고야 말 ▲그러나 나종에는어찌되든지 現今은時期가 時期이 만금 新米의出廻가 着着 ▲ 그바람에 昨今의米價는 一段見落을 告한바되엇다 그러지만、深入落은 期待키 할걸▲팔아서얼편먹고 또서 서둑때먹자는 過慾을 가지지 말고 低價를待하야 徐徐히 買進하는것이 良策이 아닐가? 누라서來春을 알랴마 은!……

金銀白金分析
高價買入
京城府茶屋町一四四
京城地金市
電話光化門二五一六番

期米 小幅圈內 往來

前場伸惱 昨後場阪地二十八圓六十錢止와 共히二十五圓六十六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六十六錢인 六丁高를據하야 二十五圓七十錢인 四丁高로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
一回四分利	九八、八〇
二回四分利	九八、七〇
佛貨四分利	―

實物前場取引

賣買高四八〇枚

▲滿洲工廠 [illegible] ▲帝火 [illegible] ▲東亞 [illegible] ▲日洋레온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illegible] 力 [illegible] ▲에라파이 [illegible] ▲第二 라파이 [illegible] ▲日本電力 [illegible] ▲京電 [illegible] ▲三菱重工業 [illegible] ▲三菱重工 [illegible] ▲朝鮮亞麻 [illegible] ▲帝 [illegible]

다 上下非常한波瀾을잇섯다가 [illegible] 行의 市勢는 [illegible] 그런다 一期米의自衛이엇서져 [illegible] 東洋에 自然的 [illegible] 實際 [illegible] 도 [illegible] 그러다가 一期買込反動이되자 忽然下落되어 中價를 失하고 그것이 되는 [illegible] 결우거리를보면 이것을잘 하고잇다。 當週末의 日產重役會로 말하드래도 普通反動이主因이 오 이에다가 最近好材料가 겨친 때문이엇다 當先의實的으로도 期決算이 가까워지 바그業績이 豫想以上으로 良好한모양이다

全혀五里霧中 雙方傍觀時代

新租의出廻旺盛으로 一般生產을 有利케하는 [illegible] 도 不拘하고 各地의市勢는 漸漸 높은 [illegible] 는도하는 新租의 出廻로 [illegible] 며 又는 압흐로 正租貯藏의 關係 와 相俟하야 도대체 出廻 [illegible] 하게될지 도 未知임으로 安心할 몰하기도困難하며 此의反面에 로는 今回政府米의拂下가 賣 渡米關連에 直接間接으로 [illegible] 는 [illegible] 나 [illegible] 하지 안홀 [illegible] 化하는 [illegible] 壓迫을 [illegible] 하기도 困難하다 그럼으로도 買方共、 [illegible] 力을 加하지 못하고 [illegible] 賣하고잇다 [illegible] 는마치五里霧中과 如히 [illegible] 알지못하나 그러나 [illegible] 段低落을 告하는 [illegible] 勸期가아닐가한다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 五圓六十五錢에 三丁低로 寄付하고 [illegible] 大引 [illegible] 는 [illegible] 保合이 [illegible] 에 止하다

米豫想訂正說
政府發表不信?

今月初旬에 農林省에서 發表한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五千七百餘萬石에 對하야 被害의 [illegible] 十萬石減收豫想한 [illegible] 餘萬石의數字는너머 過度의豫想이아닌가하야 米界에 [illegible] 에서는 政府의發表를 信用할수 업다는說이 떠돌게되다 民間側으로의 豫想說도도한信用할수

仁川期米減少

十三日現在 仁川在庫 [illegible] 米는 [illegible] 九六 二叺의減少로 在庫品을 [illegible] 면 左記와如하다

朝取期米取組高

▲新限(賣) [illegible]

堂島前場伸惱

【大阪電話】 [illegible] 賣買高는伸惱이엇다 ▲賣方 [illegible] 東側、朝鮮側、山前側、 [illegible] 側、正側▲買方 [illegible] 東京側、西山側、神戶側、中谷側、乘替)

各地正米

京城不變 好天氣로產地는 [illegible] 出廻重이오 月央 [illegible] 小品이나 現物品薄으로 [illegible] 意外下落업시(白)三等二七、四〇 四等二七、二五

仁川焦付 日本內部入注는 不振이오 天候恢復으로 買氣減退 엇스나 反面에는 賣하는者업서 市況이焦付인(白)三等二七、四〇 四等 七、二五 一等白米一一、一〇

木浦下支 出廻三 [illegible] 直段 [illegible] 一般으로 [illegible] 하야 [illegible] 强과相俟하야 小口買입으로 下支商狀이(白)三等二七、二〇 四等 七、二〇 一等白米一一、五〇

釜山軟弱 祭禮로市場休이나天候恢復으로 一、二十錢軟押의軟弱商狀이다

大邱頭重 秋祭로休商이나新米壓迫은豫想하고 頭重하다

群山保合 出廻十二輛 [illegible] 品에依하야五錢低唱 內地需要도 依然小口에不過

金融 (十六日)

外國爲替	賣	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穀

京城正米 (十六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六日)

大阪 東京 株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連特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引 / 大阪短期 / 新取短期實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賣買高 / 大阪市中在米高 / 國庫金 / 東京 / 大阪 / 各人 / 外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